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尹天星

한국과 프랑스 화장(化粧) 문화에  
관한 고찰

- 18세기 한국과 프랑스 비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18<sup>th</sup> Century Make-up  
of Korea and France

2007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扮裝藝術 專攻

文 情 砥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尹天星

한국과 프랑스 화장(化粧) 문화에  
관한 고찰

- 18세기 한국과 프랑스 비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18<sup>th</sup> Century Make-up  
of Korea and France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扮裝藝術 專攻

文 情 硯

文情硯의 藝術學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7年 6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 目 次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II. 이론적 고찰 .....	4
1. 화장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	4
1) 화장의 개념 .....	4
2) 화장 문화의 역사적 고찰 .....	5
2. 한국의 화장 문화 .....	8
1) 특성과 기법 .....	8
2) 화장재료와 도구 .....	13
3. 프랑스의 화장 문화 .....	16
1) 특성과 기법 .....	16
2) 화장재료와 도구 .....	23
4. 시대적 배경 .....	27
1) 한국 시대적 특성 .....	27
2) 프랑스 시대적 특성 .....	33
III. 화장 문화의 실증적 분석방법 .....	44
1. 분석 자료 .....	44
2. 분석 방법 .....	45

IV. 화장 문화의 비교 분석 .....	47
1. 미적 가치 기준의 차이점 .....	47
2. 화장의 표현기법 .....	48
3. 화장품과 화장도구 .....	55
V. 결 론 .....	61
1. 시사점 .....	61
2. 향후 연구방향 .....	63
3. 연구의 한계점 .....	64
참고문헌 .....	66
그림부록 .....	69
Abstract .....	72

## 표 목 차

[표 1] 연구모형 .....	45
[표 2] 미적 가치 기준의 차이점 .....	47
[표 3] 화장의 표현기법 비교 .....	49
[표 4] 화장품과 화장도구 .....	55

## 그림 목 차

<사진 1> 18세기 한국의 화장 경향 .....	52
<사진 2> 18세기 프랑스의 화장 경향 .....	52
<그림 1> 조선시대 미인도 .....	53
<그림 2> 조선시대 미인도 .....	53
<그림 3> 조선시대 미인도 .....	53
<그림 4> 조선시대 미인도 .....	53
<그림 5> 루이 15세의 딸 앙리에트 .....	54
<그림 6> 루이 15세의 딸 아델라이드 .....	54
<그림 7> 에이거란더스 부인 .....	54
<그림 8> 마담 드 퐁파두르 .....	54
<그림 9> 백분 .....	57
<그림 10> 청화백자화장분항 .....	57
<그림 11> 화장구 .....	57
<그림 12> 궁중용 은제 화장도구 .....	57
<그림 13> 청화백자분합 .....	57
<그림 14> 백자분물통 .....	57
<그림 15> 청화백자석류문분접시 .....	57
<그림 16> 백자유병 .....	57
<그림 17> 족집개 .....	58
<그림 18> 궁중용 빗 .....	58
<그림 19> 빗접 .....	58
<그림 20> 거울 .....	58
<그림 21> 경대 .....	58
<그림 22> 분통 .....	59

<그림 23> 패치박스 .....	59
<그림 24> 패치박스 .....	59
<그림 25> 이중뚜껍의 패치박스.....	59
<그림 26> 금 패치박스 .....	59
<그림 27> 루즈상자 .....	60
<그림 28> 금치장의 눈물방울 모양 향수병 .....	60
<그림 29> 연결 자기 머리 기름통 .....	60
<그림 30> 불연지 박스 .....	60
<그림 31> 금 불연지 박스 .....	60
<그림 32> 호텔 수비즈(Hotel Soubise)의 타원의 방 .....	69
<그림 33> 조선시대 분첩 .....	69
<그림 34> 연지도구 .....	69
<그림 35> 연지분첩 .....	69
<그림 36> 패치를 한 여자 .....	70
<그림 37> 마담 퐁파두르 부인 .....	70
<그림 38> 마담 뒤 바리부인 .....	70
<그림 39> 적색화장 초상화들 .....	71
<그림 40> 금으로 도금한 은 화장세트 .....	71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예술범위에 속하는 화장(化粧)은 그 역사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이집트 혹은 그전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진보해 왔다.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화장(化粧)은 미화 수단의 독립 개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주술(呪術)의 일부 혹은 약학 및 의학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또한 부(富)의 편재(偏在)와 엄격한 신분제로 인하여 고대의 화장은 일부 계층에게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던 중 13세기 말 파리와 로마에서 화장을 경멸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의학에서 분리되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화장과 화장품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해 온 현재에는 영상이나 광고, 패션에서 헤어분야까지 미용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을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우거나 연구하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화장의 기원에 대하여 몇 가지 가설을 검토해 봄으로서 의문을 풀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폭(增幅)되면서 연구, 분석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의 화장경향과 반복되는 복고의 유행에서 18세기의 화장 문화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화장 문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립해 나간다면, 미래 화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화장이 미용이라는 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예술과 문화 최고의 화려함을 표현한 18세기의 프랑스의 화장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고 시대에 따른 화장의 변천과 표현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화장경향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세기는 많은 면에서 격동의 생활상을 보여준 시기이다. 바로크 시대의 거대한 화려함에서 로코코의 섬세하고 우아함으로 전환된 시기이기도 하며, 한국적인 화풍이 크게 발달했던 조선후기로 문화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학술, 예술 전반에 걸쳐 조선의 독창성과 고유색이 빛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화장의 경향은 현대사회의 화장을 체계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18세기를 연구 범위로 정하였으며 그 시대의 화장 문화의 경향과 특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화장 문화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화장 문화의 연관성을 추측하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미술사를 토대로 18세기의 화장의 특성과 기법, 재료, 도구 등 전반적인 화장 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과 프랑스의 화장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각 나라의 미의 가치 기준에 대한 관점 또한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화장이라 함은 당시의 일반 화장경향의 유행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며 참고자료로서 당시대의 인물화를 모델을 통하여 가상으로 표현해 봄으로서 보충하고자 한다.

먼저 II장 이론적 배경을 위한 방법은 국내·외 문헌과 논문을 참고로 하고 18세기의 미술작품, 특히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물화와 각 기관과 문헌 안에 사진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방문 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화장 문화를 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화장의 표현기법, 특성, 화장재료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화장도구 등을 살펴보고, 18세기 한국과 프랑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문화 예술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화장 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III, IV장에서는 두 나라 화장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미적 가치의 기준 등의 차이점을 연구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V장 결론에서는 18세기의 화장 문화의 특성들이 현대사회의 화장 문화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역사를 통해 앞으로 예술분야의 한 장르로서 화장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고찰

### 1. 화장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 1) 화장의 개념

화장이란 미용이라는 큰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얼굴의 장점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백과사전에는 화장을 ‘연지, 분 등을 바르고 매만져 얼굴을 곱게 꾸미는 행위’,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분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통에서의 화장이란 개념은 개화기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어휘로서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꾸밈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어휘로서 사용되었다. 화장은 기초화장과 색조화장으로 나뉘는데 피부손질 위주의 관리를 담장(淡粧)이라고 하였고, 색조화장으로 치장한 경우를 농장(濃粧), 짙은 화장으로 꾸민 것을 염장(艷粧)이라고 하였다. 이런 화장의 경향은 17세기부터 변모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화장이 독립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도 화장행위를 또렷하게 구분 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상징과 의미가 가지고 발전해 온 화장의 행위는 18세기에는 역사상으로 전성기에 속하며, 근대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화장 문화 발전의 시발점과 변환점이 된 시기기도 하다. 당시 이런 화장 문화의 활발한 전개가 일부 계층에서 시작되어 발전했긴 하지

만 일반 서민여성들도 미용의 대한 관심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원하는 심리는 당연한 것이며 아름답게 있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조금이라도 노화를 막고 꾸미려는 욕구가 있고<sup>1)</sup> 오래 전부터 화장이 이를 위한 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에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발전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화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18세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 2) 화장 문화의 역사적 고찰

화장의 역사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회화의 역사보다 길다. 원시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꽃, 동물 문양 등을 회화, 조각, 문신 등의 형태로 피부에 남겼는데, 이것이 오늘날 화장의 시초였다고 추정한다.<sup>2)</sup> 이러한 화장이 시작된 동기는 미적본능의 장식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장식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성 유인설, 피부의 보호나 건강을 위해 행해졌다는 보호설, 그리고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로 행해졌다는 종교설, 그리고 결혼 유무의 표시라든지 부족과 부족 간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표시설 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화장의 기원을 어느 한 가지 설로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라서 그 동기를 달리했을 것으로 본다.

본격적인 화장의 시작은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화장의 방법이나 그 의미를 달리하며 현재는 모

---

1) 박보영(1997), 韓國, 中國, 日本 女性の 色調化粧文化,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p27.

2) 강병석(1984), Total Fashion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p3.

든 여성의 일상생활의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 화장의 역사는 고대 단군시대로 올라가고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에는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였다.<sup>4)</sup> 이 시대 실력 있는 리더의 절대적인 자격으로서 아름다운 외모가 요구됨으로써 화장 문화의 발달을 가져온 시기였다. 즉 이 시대에서의 화장은 하나의 권력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여진다.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자신의 계층이나 신분을 표현하는 도구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발전해온 화장이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내외사상의 팽배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즉, 부덕(婦德)이 강조되었으며 유학적 도덕 관념과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당시의 남성들은 부인들에게 점잖고 운치 있는 용모를 중용하였고, 여성들은 그것을 여성미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표면적인 얼굴화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sup>5)</sup>

내외란 원래 안과 밖, 즉 아내와 지아비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남편과 아내가 대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뀌고 외간남자와 상면(相面)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뀌었다.<sup>6)</sup> 화장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이와 같은 내외법 사상은 그 시대 여성들에게 화장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가 요구했던 여성의 용모가 표면적인 겉치레나 화려함보다는 후덕한 행실에서 오는 내면적인 미를 제일로 했으며,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도 화장 문화 발달에 측면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7)</sup>

근대 개화기에는 신식화장품과 화장법이 도입되면서 화장 문화의 또

---

3) 이현주(1999),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p8.

4) 이규태(1985), 韓國人の性と 사랑, 文音社,

5) 조효순(1988), 韓國服飾風俗史, 일지사, p387.

6) 전완길(1980), 한국의 여속 몇 5000년, 교문사, p129.

7) 조효순, 전개서, p387.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입술 연지색이 짙어지고 향수나 비누의 향내가 강해졌다. 특히 서구의 화장품의 본격적인 대량생산과 광고 등을 통해 우리의 미의 대한 가치가 서양의 것으로 대체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다.<sup>8)</sup>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양의 최초의 화장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이다. 그 당시의 화장은 주로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화장 행위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녔고 의학적인 기능 까지도 담당했다. 점차 그 의미가 변해가면서 남성과 여성의 화장이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남성은 갈색피부, 여성은 흰 피부와 같은 구분이 이루어졌다.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남존여비사상으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여성의 화장은 금기시 되었다. 매춘부와 같은 여성 중심으로만 이어졌으며 화장한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다.<sup>9)</sup> 차츰 여성들의 외출이 허용되면서 하층계급의 그리스 여성들 중심으로 백연, 석고, 백묵, 붉은색 염료를 사용한 화장이 유행했다.<sup>10)</sup>

로마의 전성기 시대에 이르러 화장은 요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당시 화장은 남녀 모두에게 행하여졌으며, 지나친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의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 시대의 화장이란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여유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으며, 신체적 노화를 감추기 위한 변장의 수단이기도 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화장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금기시되기도 하고 매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 이후 동양에서의 문물이 전해지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화장품과 화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되살아났다.

르네상스 부흥기 시대에서 자본주의의 출현과 예술의 발전 등으로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로 인하여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과

---

8) 이현주, 전개논문, p20.

9) 도미니크 파케(1999),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p18.

10) 조은별(1995),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p10.

도한 장식과 화장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유럽왕실과 상류귀족의 여성과 남성들은 외모 가꾸기에 열정을 쏟아 부었고 사치와 타락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화장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었다. 같은 시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귀족사회의 붕괴와 함께 화장도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화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여성들의 화장 문화는 빠른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중영화의 보급으로 화장법이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계층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화장이 등장하였다.<sup>11)</sup>

화장은 그 시대와 사회적 요인과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때 하나의 사회 문화적 산물로서 당시대의 미의식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화장 주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임에 틀림없다.

## 2. 한국의 화장 문화

### 1) 특성과 기법

조선시대의 유교적 도덕관념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상으로 인해 화장 문화가 활발하지 못했던 조선시대에 일반 부녀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화장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장 문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부녀자들은 평상시의 기초화장에 주력하여 얼굴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하는

---

11) 이현주, 전계논문, p10.

면지(面脂)법, 주름살 방지 등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화장술을 터득했던 것이다. 이러한 피부 관리 요령의 터득으로 당시 여인들의 화장은 진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부드럽고 세련되어 있었다.<sup>12)</sup> 또한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고 손에까지 확장되어 손톱에 붉은 물을 들여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했다.<sup>13)</sup>

평상시에는 색조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손님을 맞을 때나, 나들이할 때는 반드시 화장을 했다. 평상시의 치장과 의례(儀禮)치장이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상류사회뿐만 아니라 평민사회에서도 그러하였다. 즉 혼례(婚禮), 회갑잔치, 궁중연회 및 나들이 등 의식을 위한 옷차림과 장신구의 패용 및 화장이 성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歲時風俗)에는 미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것은 일찍이 미용의 생활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정월 초하루에 부인과 소녀가 새 옷을 입고 곱게 화장하는 세장(歲粧)을 한다. 하녀들도 이날엔 세장을 하였는데, 안주인을 대신하여 사돈이나 친척집에 문안을 가야했기 때문이다.<sup>14)</sup> 반대로 화장이 완전히 금지된 경우도 있었는데, 집안이 상을 당했거나 부모님이 병중일 때, 가족 중에 마마를 앓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화장이 금지되어 있었다.<sup>15)</sup>

많은 규제를 받아야 했던 만큼 화장의 경향 역시 그 전과 양상이 다소 달랐는데 먼저 고려시대와 달리 기녀(妓女)와 부녀(婦女)의 화장법이 달랐다.

기녀의 화장법을 보면 백분을 얼굴에 하얗게 칠한 후 입술과 뺨에 연지를 진하게 바르고, 눈썹을 먹으로 칠하는 대체적으로 진한 화장이었다. 반면에 여염집 부녀자들의 화장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

12) 송민정(1991), 우리나라 傳統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21.

13) 조효순, 전계서, p379.

14) 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p82.

15) 최영경(1997), 한국여성의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15.

얇은 화장이었으며, 조선조 말엽에 가서는 아예 백색 분보다는 피부색과 비슷한 복숭아 색을 즐겨 발랐던 것이다. 일반 부녀자들 중에는 세수와 빗질만 하고 아예 화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 부녀자들의 이 같은 화장 기피 현상은, 고려조에 제도화 된 기녀가 조선조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의 계층을 이루어 일반 사회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서, 자신이 기녀로 오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이유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따라서 조선시대의 화장 문화는 여염집 부녀자들보다는 궁녀나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기녀 같은 특수직 여성 중심으로 여성 스스로의 미적 자각 하에 거리낌 없이 화장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 당시 미의 기준은 옥같이 흰 살결, 가늘고 수나비 얇은 듯한 눈썹, 구름을 연상시키는 술 많은 머리, 복숭아 빛 뺨, 앵두 빛 입술, 박속처럼 흰 이, 가는 허리, 그리고 백모래밭의 금 자라처럼 아기작아기작 걷는 걸음걸이와 옥반에 진주를 굴리는 듯 목소리가 낭랑한 여자의 신윤복의 미인도<그림 1> 등에서 볼 수 있는 상이었다.<sup>18)</sup>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조선시대 여성의 화장은 연지(胭脂)와 분대(粉黛)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분대는 백분(白粉)화장과 눈썹화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분 화장, 눈썹화장, 연지화장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당시 여성들의 얼굴 단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분 화장의 경향을 보면, 백분을 얼굴에 바르기 직전에 손바닥, 혹은 분접시에 놓고 물에 갠 뒤 이마, 양미간, 양 뺨, 코, 코 양쪽 옆구리, 입술 위, 아래 등의 순으로 돌아가면서 잘 펴 바른 다음 누에고치를 이용해 만든 분첩(粉貼)으로 두드려 얼굴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했다. 이러한 화장의 풍속은 궁중에서도 성행했던 것으로, 백분을 담았던

---

16) 조효순, 전계서, p378.

17) 송민정, 전계논문, p20.

18) 최영경, 전계논문, pp11-12.

궁중용 은제 화장용구<그림 12>를 보면 알 수 있다.

백분화장의 생명은, 백분이 얼굴 피부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데 있었다. 그런 만큼 백분을 바르기 전에 얼굴에 난 솜털을 제거 해 주는 것이 또한 이 시대 화장 경향이었다. 그 방법으로 굵은 털은 족집게로, 잔털은 명주실을 꼬아가면서 아래서 위로 옮겨 가면서 뽑아주었다.<sup>19)</sup>

분 화장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기녀, 궁녀, 광대 등 직업인 그리고 의식(儀式)에 참석하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외에는 평상시에 자주 하지 못하였는데 솜털을 제거 후 분을 사용할 만큼 접시에 덜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액체 상태로 곱게 반죽하여 얼굴에 펴 바른 다음 건조하는 데는 약 20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여 그 동안 반듯이 누워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자면 화장효과가 더욱 좋았다.<sup>20)</sup> 그 밖에 얼굴 피부를 좀 더 희게 가꾸기 위해 분 화장에 앞서 분세수를 하기도 했다. 분세수란 물에 갠 분을 얼굴 표면에 발랐다가 물로 씻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여성들의 경우는 혼례식과 같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여야 할 때 이러한 분세수를 하였다.

분 화장은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 복숭아 빛 분이 나오면서, 일반 여성들은 흰색 분을 바르는 기녀와 차등을 두고자 의식적으로 이것을 바르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동일시하는 사상 영향으로, 흰 피부를 호상(好尙)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백색피부 호상은 조선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일찍이 고조선시대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희면서 기미 주근깨 등 흉터가 없으며 투명한 피부, 즉 옥 같은 피부이기를 희망하였다.<sup>22)</sup>

---

19) 조효순, 전계서, pp386-387.

20) 전완길, 전계서, pp86-87.

21) 조효순, 전계서, pp386-387.

22) 전완길, 전계서, pp59-60.

한국인들은 인상만으로 그 사람의 품성과 운명마저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데,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의 형태를 매우 중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눈썹은 술이 많고 ‘八’자형이면 무난하게 여기고, 여자의 눈썹은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지면 좋게 여겨 사대부 여성의 백과사전적인 ‘규합총서(閩閩叢書)<sup>23)</sup>’에 열 가지의 눈썹모양이 소개되어 있을 만큼 눈썹 화장에 신중하였다.

눈썹화장은 다른 부위의 화장보다 그 수정이 손쉬운 편으로 눈썹이 진하고 술이 많은 경우에 죽집계로 일부를 뽑거나 가다듬은 다음 화황(花黃)을 발라 부드럽고 옅은 색깔을 냈다. 반대로 흐린 경우에는 굴참나무 혹은 너도밤나무의 목탄을 사용하였고, 붓으로 눈썹을 그렸다.<sup>24)</sup>

눈썹의 모양은 당시 버들눈썹이 유행이었으므로, 눈을 중심으로 약간 휘게 그려주는 것이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검정색, 밤색, 회색, 자색 등 눈썹의 색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 식물을 태워 만든 재의 색에 따라 다른 색들이 만들어졌다.<sup>25)</sup>

연지는 볼과 입술을 붉은 색조로 치장하는 화장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인의 조건 중 삼홍(三紅)이라 하여 볼과 입술 및 손톱이 붉어야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지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sup>26)</sup>

백분과 눈썹먹으로 얼굴을 단장한 후에는 연지를 발랐다. 연지는 양 볼과 입술에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혼례 때는 곧지라고 하여 신부의 이마에 바르기도 했다. <sup>27)</sup> <규합총서><sup>28)</sup>에 또한 갖가지 입술

23) 憑虛閣 李氏,(1759-1824), 閩閩叢書, 十眉譜, 열 가지의 눈썹모양 - 원앙(鴛鴦), 소산(小山), 오악(五嶽), 삼봉(三峰), 수주(垂珠), 월릉(月稜), 분초(分稍), 함연(涵烟), 불운(拂雲), 도훈(倒暈).

24) 전완길, 전계서, pp101-102.

25) 조효순, 전계서, p388.

26) 이규태(1984), 韓國人의 生活構造 1, 朝鮮日報社, p152.

27) 조효순, 전계서, p388.

28) 閩閩叢書, 열네 가지의 입술연지 찍는 법 - 석류교(石榴嬌), 대홍춘(大紅春), 눈오향(嫩吳香), 반변교(半邊嬌), 만금홍(萬金紅), 성단심(聖檀心), 노주아(露珠兒), 내가원

연지 찍는 법도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기생이나 유녀(遊女)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sup>29)</sup>

## 2) 화장재료와 도구

인류가 분을 사용한 기록은 기원전 2200년경으로 중국 하나라시대에서 시작되었는데 분의 역사는 약 4천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에 백분의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지 않으나 백제의 여인들이 분을 사용하였고 신라의 승려 권성이 서기 692년에 일본에서 연분을 만든 사실이 있으므로 신라에서 그 이전에 무연백분이 제조되어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삼국시대 초기보다 훨씬 앞설 것이다.

분은 쌀을 분쇄한 후에 향료를 넣어서 만든 것으로 쌀가루라는 의미이며 미분으로도 불린다.<sup>30)</sup> 분은 백분과 색분으로 대별되며, 백분은 다시 무연분과 연분으로 나뉜다. 무연백분은 부착력이 약하여 납과 초를 섞은 연분(鉛粉)이 만들어졌다. 이때 초의 분량, 숯불의 온도 등에 의해 분의 빛깔이 달라졌는데, 푸른빛 내는 분을 진분(辰粉)이라 하여 최상급으로 쳤다.<sup>31)</sup> 백분은 분꽃을 집 주변에 심어 거둔 씨앗을 그늘에서 말려 맷돌로 빻고 체에 쳐서 만들었다. 연지도 홍화를 직접 재배하여 꽃잎을 거두었고, 이를 말려 빻고 비비고 체에 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하였다.<sup>32)</sup> 색분의 색소는 백합꽃의 붉은 꽃술 가루를 모은 것

---

(內家圓), 천궁교(天宮巧), 낙아은담 (洛兒殷淡), 홍심(紅心), 성성훈(猩猩暈), 소주 룡격쌍(小珠龍格雙), 당미화노(唐媚花奴)이다.

29) 전완길, 전계서, pp60-61.

30) 이소연(2001), 전통 화장재료의 변천과 화장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p22.

31) 이규태(1984), 전계서, p152.

32) 전완길, 전계서, p67.

인데 연지와 색분이 함께 불연지로 사용되었다.

눈썹먹은 검은색이 나는 미목 대신 굴참나무와 너도밤나무의 목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목탄 가루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었고 관솔에서 나오는 유연(油煙)을 받아 평자의 기름에 갠 것이 고급품으로 취급되었다. 또는 목화의 자색꽃 태운 재를 유연에 묻혀 참기름에 이긴 것이나, 보리깜부기를 솔잎 태운 유연에 대어 만든 것을 눈썹먹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눈썹이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면 화황(누런 분)을 발라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눈썹 색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sup>33)</sup>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화장 도구로는 먼저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었던 거울<그림 20>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있어서 거울은 단순히 외모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비춰보는 도구로 간주됨으로서 거울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컸다. 많은 의미와 상징이 담겨져 있었던 조선인들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나 돌 거울이며, 유리 거울이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말엽이었다.<sup>34)</sup>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거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화장도구는 분합(粉盒)<그림 13>이다. 분(粉)은 글자가 의미하는 대로 쌀을 가루 낸 것이나, 실제로는 쌀로만 만들지 않고 쌀과 서속(黍粟)을 3:2로 배합하여 만들었다.<sup>35)</sup> 그러나 무연백분은 부착력이 약하고, 날 비린내가 나는 단점이 있어 분의 원료를 절구나 맷돌에 갈아 분말을 만들고 체에 쳐서 분합에 보관하였다.<sup>36)</sup>

분합의 형태는 납작하여 거기에는 뚜껑이 달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분을 개는 접시<그림 15>, 분을 담은 작은 항아리<그림 10>, 분물을 담은 그릇<그림 14>들이 있었다. 분합에 이처럼 세 가지 용기가 갖추

---

33) 조효순, 전계서, p389.

34) 조효순, 전계서, p380.

35) 전완길, 전계서, p85.

36) 상계서, p142.

어져 있었던 것은, 분 사용법이 가루분을 곱게 개서 얼굴에 바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녀 화장의 초점은 물에 갠 분이 얼마나 곱게 피부에 스며들었나 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 분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물에 갠 분을 얼굴에 바를 때는 누에고치로 만든 분첩<그림 35>을 사용했다. 이 때 누에고치로 만든 분첩은 그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양 볼에 연지를 바를 때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신부의 양 볼과 이마에 동그랗게 연지와 곤지를 찍을 때도 도구가 사용되었다. 곧 “화각(華角)으로 만든 도장 모양의 형<그림 34><sup>37)</sup>”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반층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서민층에서는 대개 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랐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화장 도구로 유기(油器)<그림 16>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머릿기름을 담은 용기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머리를 소중히 가꾸었던 만큼, 이 유기는 다른 화장용기에 비해 역사가 깊고 또 종류도 다양한 편이었다. 또한 궁중에서는 은제(銀制) 화장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대<그림 21>는 화장품과 화장도구를 담아두는 저장용구이자 화장할 때에 사용하는 화장도구이다. 경대에는 각종 화장품 및 빗, 빗치개, 뒤꽂이, 비녀, 불두잠, 족집게<그림 17>를 비롯하여 분접시, 분물통, 연지 반죽그릇, 머릿보와 실, 수건 따위를 담았다. 그러므로 경대의 제작으로 인하여 여성이 화장하기 편해지고, 생활공간을 축소하게 되었다. 경대는 조선시대에 중국 조정에 예물로서 자주 보내졌다.<sup>38)</sup>

빗<그림 18>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는 빗이 여성들의 장신구로도 사용되어 뒷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하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빗을 잃으면 정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빗을 주면 허혼(許婚)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37) 석주선(1978), 韓國服飾史, 寶晉齋, p265.

38) 전완길, 전계서, pp113-115.

빛을 머리에 쬐는 관습이 사라졌다. 빛의 모양은 반달형과 직사각형이 대부분이며 빗살의 성김의 정도에 따라 열레빗과 참빗으로 구분된다.<sup>39)</sup>

이 밖에 입술연지라든가 눈썹 그리는 화장법이 꽤 발달되어 있었던 만큼, 이 때 사용되었던 붓과 비슷한 형태의 도구가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40)</sup>

이러한 화장품과 화장도구는 분전(粉塵)같은 전문상점에서 판매되기도 하였으며 방물장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판매하였다. 방문판매는 숙종(1675-1720)시절에 있었으며 유교관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들의 외출이 제한된 시대적 배경으로 당시엔 주로 매분구(賣粉媼)나 방물장수 같은 방문판매에 의하여 화장품과 화장구가 전달되었을 것이다.<sup>41)</sup>

### 3. 프랑스의 화장 문화

#### 1) 특성과 기법

특수한 시대의 이상적인 미는 항상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계급 또는 적어도 정치를 지도하는 계급의 이해관계에 부응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절대주의 시대에는 빈둥거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에 반해 조직적인 노동을 상기시키거나 그에 적합한 듯이 보이는 인간의 외모는 추하게 여겨졌다.<sup>42)</sup>

프랑스 18세기의 화장은 하기 전 모습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다를 정

---

39) 송민정, 전개논문, p67.

40) 조효순 전개서, pp383-384.

41) 이소연(2001), 전개논문, p13.

42)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譯(2001), 풍속의 역사IV, 까치글방, p11

도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루이 15세 시대의 프랑스는 혼란하고 무분별한 메이크업이 성행했고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17세기 영국으로부터 계속되는 패치(Patch)<그림 36>의 사용이었다. 종이실크, 벨벳을 재료로 한 작은 검정색의 패치는 기발한 형태로 만들어져 여드름과 마마자국 뿐 아니라 가슴에까지 붙여졌다. 당시 이러한 패치가 사람을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믿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하는 듯이 품이 많이 든 방식도 있었다.<sup>43)</sup> 또 건강함이 넘치는 붉은 피부 색깔보다 창백한 색을 선호하였다. 건강함은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무시당했고 따라서 귀부인들은 자기 얼굴이 누구보다도 창백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볼이나 이마 혹은 목에 일부러 검은 무슈(mousch), 즉 애교점 패치를 붙였다. 이에 관해 1715년의 “숙녀사전<sup>44)</sup>”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무슈, 즉 애교점은 검은 호박직(琥珀織)을 크고 작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른 것이다. 귀부인은 그러한 것을 얼굴이나 가슴 위에 붙여서 살갓이 더욱 하얗게, 더욱 귀엽게 보이도록 했다”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풍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21-1764)<그림 37>는 화려한 의상에서 헤어스타일, 화장법을 유행시켰는데, 머리 위에 납 가루분 대신 중국에서 수입한 쌀 가루분을 뿌렸던 것이 유행이 되어 온 집안에 쌀가루가 날아다녀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방을 만들어 파우더 룸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파우더 룸은 화장하는 방을 뜻하게 되었다.<sup>45)</sup>

당시에는 창백한 얼굴이 아름답게 여겨졌으므로 18세기에 들어오자 백분을 머리에 뒤집어쓰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얼굴에도 분을 많이 바르는 것이 유행했는데 백분을 바른 또 다른 이유는 노숙

43) 青木英夫(1995), 西洋化粧文化史,, 東京 : 原流社, p83.

44)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譯, 전계서, p19, 재인용

45) 이지은(2001), 國産化粧品과 輸入化粧品の 選好度에 關한 研究,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p21-22.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나이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빛깔을 만들어 남성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백납분을 사용하여 얼굴을 희게 표현하였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발랐다. 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분이 가난한 백성의 집에서조차 주부나 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애용됐는가는 많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sup>46)</sup> 또한 입술에 대해서 “미의 하인<sup>47)</sup>”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sup>48)</sup> “입술의 아름다움은 옅은 막으로 싸인 위아래 입술이 마치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진홍색이나 붉은 산호색으로 빛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여기서 입술의 붉은 화장 선호경향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볼과 입술에 연지를 칠하고 뺨에는 패치를 붙였는데, 그러한 모습이 세련된 신사(紳士)로 인식되었다. 남성이 화장을 한 기록은 로마나 이집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18세기처럼 여성적 메이크업이 습관화되었던 적은 없었다.

이 시대 화장의 특징은 백발의 유행과 맞추어 얼굴은 하얗고 창백한 피부에 혈관은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치장하였고, 뺨의 위치보다 약간 밑에 볼 화장을 하고 깨끗하게 강조한 눈썹, 루즈를 바른 장미 꽃봉오리 같은 입술로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뒤 바리(Madame du Barry) <사진 38>의 모습으로 대표된다.

당시 특이한 점으로는 붉은 화장이 행해지면서 전체적인 인공의 순수함이 집중되고 존중되어져 얼굴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홍반보다는 인공적인 붉은 화장이 선호되었다. 붉은색이라 해도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뉘앙스와 계급 차이도 나타났다. 베르사유 궁에서는 눈 바로 밑에 타는 듯한 붉은 점을 그렸는데 대략 10종류 정도의 적색

46)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譯, 전계서, pp24-25.

47) 상계서, p20, 재인용.

48) 상계서, pp19-20.

이 있었다.

이러한 적색 화장의 유행은 당시의 초상화<그림 39>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궁정부인이 붉은 화장을 하지 않은 기간은 복상기간 뿐이었다고 한다. 백분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연지를 바르는 붉은 화장법은 1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그 기간의 유행에서는 백분이 바탕이고 연지 쪽이 중심이 되었다. 49)

이렇듯 흰색과 빨간색으로 치장한 얼굴 화장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것은 얼굴의 점이나 주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화장은 피부에 좋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장을 하였고<sup>50)</sup> 무분별한 화장품 사용으로 심한 부작용 사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8세기의 귀족들이 사용한 연지의 붉은빛은 진홍색에서 자홍색, 장미색, 주홍색을 거쳐 주황색에 이르기까지 넓어졌다. 분을 바른 얼굴의 흰 바탕을, 관자놀이 부근은 갈색, 입술 주위는 밝은 색조로 칠했고 광대뼈와 눈 가까이에만 원형으로 연지를 발랐다. 자연스러움보다는 매혹적이고 격한 욕망을 표시하고 눈에 기쁨을 주기 위해 바르는 듯 했다.<sup>51)</sup>

길고 긴 하루해를 하는 일 없이 견뎌야 하는 귀족들로부터 생겨난 살롱문화는 이렇게 시작해서 밤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잠을 깨는 게 상례였다고 하며, 그날 저녁의 살롱 또는 음악회, 오페라, 무도회 등의 사교장으로 나가는 장식을 위해 반나절을 화장과 몸치장 등을 하인들이 거드는 가운데 보냈다.

눈썹이 선천적으로 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하게 그렸다. 눈썹을 검

---

49) 青木英夫, 전계서, p85.

50) 지정아(1999),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복식, 헤어, 메이크업 경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p33.

51) 도미니크 파케, 전계서, p54.

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완숙한 서양 딱총나무 열매로 자주 문지르는 방법이 있었다. 눈썹, 속눈썹, 눈꺼풀에 태운 코르크, 상아를 깎은 부스러기 태운 것이 사용되었다. 눈썹은 전문가 혹은 자기가 모양을 다듬었는데 유산철 용액에 담근 작은 붓이나 연필로 눈썹을 축이고 그 용액 속의 아라비아고무가 소량 녹아들어 있어 마르면 검은 색이 되었다.

눈빛을 촉촉하게 보이기 위해 벨라도나(belladonna)의 즙으로 동공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쥐의 피부로 인조 눈썹을 만들어 아교로 붙였으며 이가 빠져 뺨이 들어간 부분에는 플럼퍼(plumper)라는 패드를 넣어 뺨을 통통하게 만들었다.<sup>52)</sup>

여성만큼 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남성이 연지를 발랐고 어린이의 연지 화장은 종종 모친과 꼭 같았다. 루이 15세의 어린 딸 앙리에타가 죽었을 때 죽은 얼굴에는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한 화장을 했다. 이 시대까지 화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므로, 도덕적 근거나 미학적 견지에서 이따금 비판이 있을 뿐이었다. 잠을 잘 때에도 열은 연지를 발랐다.

1761년 드루에가 그린 마리 드 벨리에르의 초상화에는 불연지가 진하게 칠해져 위는 눈 가까이부터 아래는 코에서 귀에 걸쳐 볼 대부분을 덮는 거의 역삼각형으로 퍼져 있었다. 1756년으로 기록된 나티에(Nattier. Jean Marc, 1685-1766)가 그린 프랑스인의 초상에는 불연지가 광대뼈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둥글게 칠해져 있다. 부세 같은 화가의 마담 드 풍과두르의 초상화에서도 볼 조금 아래쪽에 둥글게 칠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또 18세기 중기의 반 루에 의한 프랑스인의 초상화에서는 불연지는 밝은 핑크 색인데, 둥근 모양으로 입 가까이까지 칠해져 있다. 입술은 작은 장미 봉오리처럼, 눈썹은 자연 그대로의 다색으로 머리털은 회색 머리 분을 발라 그려져 있다.

종종 프랑스 여성은 오페라에 나오는 창백한 여성처럼 선명한 연지

---

52) 이지은, 전계논문, pp21-22.

를 완전한 원형으로 그렸다. 이것은 눈에 반짝임을 더하려는 것인데 루이 16세 시대 마담 조제는 궁정 귀부인들에게 자연의 안색처럼 아름답다는 식물성 연지를 조달했다.

루이 15세 시대에는 짙은 붉은 색에서 갈색에 이르기까지 붉은 색 계통의 색상 및 푸른색이 유명했으며, 루이 16세 때에는 갈색에 보라색이 섞인 색이 유행했다.<sup>53)</sup>

립스틱은 펜슬타입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남녀 모두에게 애용되었으며, 그 외에 각종 향수가 필수적 화장품이 되었고 향수 제조업은 성업을 이루었다. 1774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가게가 생겼고, 화장품은 여러 직업에 의해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제조되어 마술적인 처방과 함께 선전되었다.

사람들은 루즈에 열광했고,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루즈가 독점적이었고, 당시 프랑스는 매년 200만 Pot의 루즈를 팔았다. 가장 작은 Pot이 금화 한 냥 값이고, 아주 좋은 루즈를 얻기 위해서는 60~70 리브르(livre-옛날 프랑스의 화폐 단위)를 지불해야 했다.<sup>54)</sup>

18세기에 향수와 분이 과도로 사용된 데에는 두세 가지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이 우아한 시대는 사실상 매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불결한 시대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어 분은 자국을 감추어주기 때문에 위장방법의 이유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5)</sup>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 쓴 라 브뤼엘은 프랑스 여성들은 입술, 볼, 눈썹, 어깨 등에 화장할 뿐만 아니라, 가슴, 팔, 귀에 까지 서슴지 않고 화장한다. 화장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

---

53) 지정아, 전계논문, p11.

54) Alain Rustenholz(2003), Make Up, Hachette Illustrated UK, p54.

55)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譯, 전계서, p289.

기에 부인들은 항상 화장 상자를 지니고 다녔고 언제 어디서나 공공연히 입술과 볼 화장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하였다.<sup>56)</sup> 얼굴이 납 성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의 과도한 사용 때문에 파괴되는 것도, 그녀들 얼굴에서 싱싱함이 금방 사라지고 입술연지나 화장료를 사용한 탓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납빛이 되거나 해도 위로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여성들의 무분별한 화장에 대해 풍자한 글과 시가 많았다.

1718년 파리를 방문한 영국의 한 재원(才媛)은 “...그 화장은 말할 수 없이 부자연스러워서, 뺨 전체와 턱밑까지 유들유들하게 번쩍거리는 별건 연지가 듬뿍 칠해져서 그녀들의 얼굴은 어떻게 보아도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백과전서>의 디드로<sup>57)</sup>도 “지독한 뺨의 연지를 이것 보라는 듯이 바르는 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건 아니다.. (중략).. 참으로 유행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어려운가보다...”라고 당시의 귀족취미를 한탄했다고 한다.<sup>58)</sup> 이것으로도 18세기 초반에 프랑스 여성들의 화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는 연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귀족사회가 붕괴되어 건강함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화장으로 바뀌었으며 18세기 말에는 붉은 포도주의 찌꺼기나 장미꽃잎에서 추출된 붉은색 등의 자연적인 색채의 화장품이 출현했다.<sup>59)</sup>

1798년, Francois Gerard의 그림 ‘Cupid and Psyche’에서 루즈 사용의 종지부를 찍고 고색의 전형이라고 생각되었던 창백함으로 되돌아왔

56) Alain Rustenholz, *ibid*, p58.

57) Diderot, Denis, 1713-1784,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자,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1751년에 백과전서를 완성하였다. 이 《백과전서》의 내용은 종교·교회의 비판, 중세적 편견의 타파, 전제정치의 비판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도중에 수많은 탄압과 발행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1759년 이후에는 비밀리에 편집·인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이 사업에 바쳤다.

58) 유준상(1993), 18세기 프랑스 귀족사회의 미술품, 국립현대미술관. pp21-41.

59) 이지은, 전계논문, p21-22.

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Psyche처럼 화장하기 시작했다.

## 2) 화장재료와 도구

유럽의 화장품은 로마시대에 납으로 만든 분을 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노력도 많았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크림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현대 메이크업의 역사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집트의 화장법이 굉장히 발달하여 돌이나 식물들, 검정색 안료를 이용하여 아이라인과 아이세도우를 만들어 발랐다고 하니 이러한 미용기술이 1세기 무렵에 절정에 이르러 유럽 각지로 퍼지게 되었다. 로마에서도 납과 포도주와 몇 가지를 섞어서 끓여 만든 '사과'라는 맹독성 물질을 즐겨 발라 납중독으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것이 미인으로 여겨지면서 사용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머리와 얼굴에 무분별한 백분 사용으로 여성들의 얼굴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를 풍자하는 시와 글도 많았다. 따라서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713년 출판된 '열려진 여왕의 화장대'라는 아름다움의 비결에 관한 책에서 많은 화장법의 실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로즈마리를 백포도주로 끓여 세안을 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입 냄새 또한 없었다고 한다. 남은 것을 마시면 숨을 쉴 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된다고 한다. 중세시대에는 포도주를 많은 화장재료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고급의 리넨(linen)류 천을 준비해 풀 위에 놓고 이슬에 젖을 때까지 두었다가 천의 이슬을 접시에 짜서 몇 번씩 세안을 하여 얼굴이 빨개지거나 원래 붉은 얼굴과 지성피부의 코를 낮게 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썼다.

얼굴의 윤기를 좋게 하는 방법 등은 복잡하긴 하나 당시에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연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꽃을 짠 즙과 서양 딱총 나무나 붓꽃, 아욱과의 식물 당아욱, 누에콩의 꽃을 준비하고 멜론 과육, 벌꿀, 달걀흰자를 섞어서 증류시키고 그 증류액은 피부 노화와 선홍색의 피부표현에 사용했다.<sup>60)</sup>

화장수의 재료로는 뱀 딸기류(꽃의 일종)의 즙과 히말라야 삼나무, 레몬이 주성분이며 베르가모트 향유에 풍부해 많이 사용했다.

포마드는 오이, 달팽이, 네 개의 콜드 시즈가 든 무색, 백색, 적색, 황색의 순수 포마드가 입술 갈라진데 사용되었다. 유리관이나 단지에 보관 되었다.

보통 분은 매우 미세하고 브랜드로 정제한 것이나 와인의 알코올로 정제한 것이 있었다. 색은 백색, 흑색, 다색, 금색, 회색, 피부색, 장미색, 체리색 등이 있었고 원수(元帥)부인용으로 제비꽃이 든 것, 향기 붓꽃이 든 것, 성죽(成竹)이 든 것이나 오렌지의 꽃, 황수선, 율하향, 톱풀, 누에콩, 데이지, 실 삼나무로 된 것이 있었는데 전부 밝은 색상이었다. 얼굴 분은 녹각정, 쌀가루, 연백, 오징어 껍질, 유향, 아라비아고무를 섞어 장미수로 희석한 것으로 세안 시에 사용되었다.

1685년 프랑스 화학자 라앙물르의 ‘비전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화장법의 대부분이 담긴 책이 1711년에 출판되었다. 다소 오래된 방법에서 새로운 것까지 많이 실려 있는데 얼굴을 붉게 하는 화장법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다. 적색 염료가 채취되는 열대산 나무 브라질우드에서 채취한 적색염료와 알카넷이라는 유럽 중 쪽과의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염료를 명반(明礬) 수용액에 녹여 볼과 입술에 사용하라고 되어있다.<sup>61)</sup> 알카넷 뿌리와 붉은 리본이나 털실을 담근 물 또는 브랜드로 착색한 포마드가 아름다운 붉은 빛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식물성 염료로 염색한 볼연지도 있었다. 이는 최상의 브라질스호의 껍질을 벗겨

60) Richard Corson(2003), Fashion in makeup, Peter Owen, p189

61) Richard Corson, ibid, p188

백포도주에 듬뿍 담가서 3~4일간 방치하고 30분간 끓여 튼튼한 마포로 걸러 다시 불에 엷는다. 똑같이 다시 명반(황산 알루미늄) 8온즈를 충분한 양의 백포도주에 녹인 후 양 용액을 유발에 넣어 섞으면 거품이 생긴다. 이것이 심홍색의 안료인데 거품을 건져내고 건조시켜 보존해서 사용했다. 이 외에도 면 조각을 담가서 불을 문질러 사용하기도 했다.<sup>62)</sup>

불연지는 대체로 가루 모양으로 단지에 들어있었다. 흰 피부, 검은 피부용 등 여러 가지 색이 있었다. 카마인, 불색, 장미색 등이 있다. 진주와 그 외 여러 가지로 만든 분도 있었다.

입술연지는 백납과 소의 골수, 백 포마드를 중탕으로 녹여 알카넷을 첨가해서 전체가 적색이 될 때까지 젖는다. 장미 연고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장미수로 씻은 돼지기름, 붉은 장미, 담담한 색의 장미를 유발 속에 넣고 부수어 섞는다. 이를 동안 물에 담가서 불리고 돼지기름을 녹여 거른다. 최초와 같은 양의 장미를 추가해서 다시 이를 동안 지방 속에 담가서 부드럽게 한다. 그 후 중탕으로 끓게 해서 짜서 길러 보존해서 사용했다. 입술을 붉게 보이기 위해 정해놓고 순정의 브랜드를 입술에 바르기도 하였다. 매우 복잡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다른 화장품에도 많이 시도 된 점으로 보아 오늘날 화장품이 발달을 가져오는 역할을 톡톡히 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인조 눈썹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남녀 모두에게 유행하였고 재료는 쥐의 피부로 만들어졌고 아교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당시 여성은 세 가지 흰 것(피부, 치아, 손), 세 가지 붉은 것(입술, 볼, 손톱), 세 가지 검은 것(눈, 눈썹, 속눈썹)을 지녀야 했다.<sup>63)</sup> 따라서 화장뿐 아니라 매니큐어의 사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유럽산 쓴 야생 박하에서 짜낸 쓴 즙 혹은 황을 함유한 포도의 즙에 송진과 소량의 식초

---

62) Richard Corson, *ibid*, p232

63) 도미니크 파케(1998), *전게서*. p46.

를 섞어 만들거나 송진을 섞은 향료 약재로 사용되는 몰약(沒藥)과 레몬주스를 소량 사용했다고 되어있다.<sup>64)</sup>

화장도구로는 패치박스, 불연지 통<그림 30, 31>, 입술연지 통, 브러쉬, 분침 등등 현재에까지도 널리 발달된 화장도구들이 사용 되었다. 패치박스나 입술연지 통, 불연지 통 등은 자기나 에나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목각을 넣거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고 금이나 여러 가지 보석류의 호화로운 장식으로 벽걸이용부터 화장대용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보통 뚜껑이 둘 있고 중요한 쪽 안에는 거울이 붙어 있다. 상자 안은 둘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뚜껑이 없고, 화장용 금 손잡이가 붙은 작고 둥근 브러쉬가 들어있다. 나머지 칸에는 항상 뚜껑이 닫혀있고 입술연지, 아이새도 따위의 화장재료를 넣어 둘 수 있었다.

18세기에는 무엇보다 패치의 유행이 성행하였는데 얼굴과 턱, 가슴 등에도 사용하였다. 이 패치는 비단이나 벨벳, 종이까지도 잘라서 유향(乳香)유로 붙였다. 패치의 모양 또한 다양하였는데 1705년 독일의 Zwickau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쇠퇴할 줄을 몰랐다. 간혹 남성도 패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패치는 전용 패치박스<그림 26>에 넣고 다녔고 일반적으로 장방형 모양이었으나 타원형, 원형인 것도 있었다. 두껍지 않고 안에 거울이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기에 편리했다. 당시 최고 솜씨의 금 세공사나 은 세공사에 의해 만들어진 근사한 것이 많았으며 유명 화가의 그림으로 장식된 것도 몇 개쯤 있었다. 마담 드 폰파두르<그림 8>는 백조 모양의 에나멜 패치 박스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

64) Richard Corson, *ibid*, p188

## 4. 시대적 배경

### 1) 한국 시대적 특성

#### (1) 사회 경제적 특성

한국의 18세기는 조선시대(1392-1910) 중 조선후기로 숙종(1674-1720)에서 경종(1721-1724), 영조(1724-1776), 정조(1776-1800)의 통치시대로 중세적 사회질서가 무너지면서 근대로의 이행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거치면서 양반 사대부들의 제도상 내부에 모순이 생겨 쇠퇴하는 과정에 들어갔으며 사상적 배경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외족(外族)의 침략은 조선사회를 급속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이미 전란 이전부터 해이해져 있던 양반관료의 지배체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며, 전쟁의 결과로 전결(田結)의 감축이 국가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재정의 궁핍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양반지배 체제의 모순, 양반의 생활방도 그리고 전란 뒤의 사회 상태의 악화, 이런 것들이 양반 관리들 간의 분열과 파쟁을 더욱 격화시켜 갔다.<sup>65)</sup>

한편 전란으로 인한 경작지의 황폐,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는 이미 전란 전부터 문란해졌던 직전(職田)제를 폐기하고 17세기 중엽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현물공납의 형태는 상품생산의 형태로 전환되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자유 수공업자의 등장은 18세기 이후 일부 상업자본의 성장을 가져왔고 부농(富農)과 부상(富商)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농촌에서는 부익부

---

65) 한우근(1970),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pp315-317.

빈익빈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양반층과 농민층의 분해 형상을 가속화 시켰다.

전란으로 의한 군사적, 재정적 긴급사태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노비 제도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종래의 엄격했던 노비의 신분적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즉 전란 중에 노비 신분으로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정부에 미곡을 납입하면 그 대가로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어 평민 신분으로서 인정해 주었다.

이와 같은 관노비 체제의 붕괴현상은 18세기 말에 들어 더욱 심화하였는데 양반이 전체 인구의 40-50%에 달했다. 이들 양반 중에는 경제적으로 몹시 빈궁해 사회적 지체를 지키기 어려운 이들도 있었다. 그것이 비록 조선왕조의 신분체제의 모순과 전란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피폐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당시 노비들의 신분에 대한 자각과 신분향상의 의욕이 이를 더욱 가속화해 갔던 것이다.<sup>66)</sup>

이렇게 조선 후기는 현실의 지배 체제와 통치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던 때였고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때였다.

성리학(性理學)적 지배질서의 한계로 그 사회적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조선의 소장학자들은 허(虛)의 학문이 된 성리학적 유학에 대하여 실(實)의 유학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실학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실학이란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실리(實利), 실정(實定), 실증(實證)의 학문을 뜻한다.

실학사상은 주자학 일변도의 경학, 성리학에서 또한 주자학적인 신분관, 직업관에서 탈피하자는 탈주자학적인 경향과 세계관, 역사의식의 확대와 심화, 그리고 조선 자체에 대한 재인식으로 자국의 역사와 문화 일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의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실학사상은 18세기 중엽이후 영조, 정조의 치세를 통해 수취체제의 전면적 개편, 왕정의 안정을 위한 탕평책의 실행과 더불어 유교적인 통치규범의 개

66) 김상희(1998), 18, 19世紀 風俗畫의 研究,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p9.

편과 재확립이라는 현실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sup>67)</sup>

이렇게 실학사상은 18세기 말에 정치 사회적으로 모순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으며, 비현실적인 유학의 학풍에서 탈피하여 농업 중심의 이상 국가를 이루려는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상공업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이용후생(利用厚生) 등 신분적 차별 없는 이상적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학은 현실에서 출발한 실용적 학문으로 당시 처한 정치, 경제사회, 역사, 지리, 자연과학, 농업 등 모든 분야가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종래 중국 고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국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예에 있어서도 국문 소설이 등장하였으며, 그림에서도 중국의 경치를 모방한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경치를 묘사한 독창적인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등이 발달하였다.<sup>68)</sup>

## (2) 문화 예술적 특성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불교를 삼았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여 그 전까지의 문헌과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즉 억불숭유정책은 당시의 문화를 검소하고 실용적이며 소박한 성격의 것으로 발전하게 했는데 이점은 미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교를 숭상한 조선은 불교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탈피하였다.

18세기는 한국미술을 근대미술로 이를 다시 현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 중요한 시기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대 변란을 겪고 난 한국인은 동양정세 전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sup>69)</sup> 수공업과

---

67) 신용하(1997),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pp269-270.

68) 임영자 외(1999), 18세기 末 조선과 프랑스 頭髮樣式의 類似性 연구, 한국복식학회, p208.

상업의 발달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져왔고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의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사상으로 인해 한국 회화가 중국적인 양식에서 탈피하여 가장 한국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회화는 18세기 영, 정조 이후 경제적인 성장과, 서민층의 자각, 실학의 대두 등 사회 문화 전반의 새로운 움직임에 부응하여 커다란 발전을 가져와 한국 회화 역사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18세기 전반에는 당시의 정치가, 철학자, 문필가 등 사대부와 사회에서 그 자신이 지체 높고 학문이 높은 사대부이거나 사대부출신인 화가들이 새로운 시대사상과 분위기를 선호하고 부합하여 그림을 주도하였고 자아를 발견하여 한국의 자연과 문화와 생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자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방법에 아무런 구애나 구속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의 내용이 수백을 넘고 그림의 종류는 수천을 헤아린다. 그림의 구성과 채색 등도 객관적이기 보다 화가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화 하나하나에 독특한 아름다움과 재미와 소박함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엄청난 결과는 18세기 회화 뿐 아니라 18세기 예술에서 연유한 것이다.<sup>69)</sup>

조선 숙종 대에 개원하여 영, 정조대에 융성하였던 풍속화는 당시에 '속화'라 불렸다. 풍속화의 선구자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로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緒, 1668-1715)를 들 수가 있다. 그가 그린 4점의 풍속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데, 당시의 풍속화로서 남아있는 작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이다.<sup>71)</sup> 조선 후기 풍속화의 태동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69) 정양모(1993), 18세기 한국미술, 국립중앙박물관 p23.

70) 정양모, 전개서, p25.

71) 이내옥(1992), 조선후기 풍속화의 기원, 미술자료, pp45-46.

후기 회화의 양상은 중국에서 새로이 유입된 남종문인화풍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한국 회화에 뿌리내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소극적이거나 중국 청나라를 통해 서양화풍과도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뛰어난 화가로 지목되는 화가는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1707-1769), 표암 강세황(豹庵 姜世晃, 1712-1791),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26), 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 1758~?) 등이 있다.

정선은 중국적 회화에서 탈피하여 소위 한국에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회화의 세계를 이룩하였다. 겸재는 전통회화에서 관념적인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구도, 새로운 필법(筆法)을 창안해 냈으면서도 종전의 회화에 대한 재검토를 멈추지 않았다.<sup>72)</sup>

18세기 후반에는 화원출신 가운데서 18세기 전반의 한국화를 계속 발전시킨 위대한 화가들이 배출되어 화단을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등 우리 산수화와 풍속도에 위대한 화가를 배출하였다. 단원은 풍속화에서도 매우 뛰어났을 뿐 아니라 한국적인 풍속화를 정착시킨 인물이다. 단원의 풍속화는 서민의 생활로부터 사대부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의 화필이 이르지 아니한 데가 없으면서 특히 서민과 사대부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많이 그렸다. 이러한 단원의 풍속화는 바로 그 시대에 이어 많은 사람이 모방하여 그렸으며 후에 우리 민화의 모본이 되었다. 단원과 또 다른 의미를 지니며 또 다른 세계의 풍속화를 그린 화가가 신윤복이다.

단원이 농민과 사대부의 일상생활을 그렸다면 혜원은 사대부 중에서 풍류객인 한량과 기녀 등의 풍류와 애정과 관계가 있는 정서를 담은 그림들을 그렸다. 단원의 필선은 대담하고 소탈하고 생략되었지만 혜원의 필선은 예리하고 섬세한 맛이 있다. 모두가 18세기라고 불리는 시대 분위기가 만들어 낸 깊은 자아의 의식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

---

72) 정양모, 전계서, p24.

본 데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인물화를 통해 당대의 미용 문화를 알 수 있는 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18세기 화단은 한국화를 완성하고 세련시킨 위대한 시대이면서 중국적인 관념산수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남북종화(南北宗畵)의 준법을 모두 구사하고 자기 화법을 개척하여 독특한 그림으로 발전시킨 시대였다. 다시 말하면 18세기는 그 시대사상의 다양함과 같이 우리 화단이 백화난만(百花爛漫)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서민적이고 순박한 조선 미술의 특징은 도자공예, 목죽공예, 칠기공예 등의 생활용품의 발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 시대의 미술은 대체로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정서와는 달리 민중적인 정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선시대의 미술 중에서도 특히 발달했던 것은 회화와 도자공예 및 목칠공예, 그리고 목조 건축 등이다. 이는 즉흥적이고, 소탈하며 친근감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의 미술은 문화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문과 예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장려하였던 초기의 세종대왕과 성종, 후기의 영조 및 정조의 치세를 전후하여 꽃피웠다.

이 외에도 18세기 후반기에는 실학자들 사이에는 자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게 향상되었다. 실제로 오랫동안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학문에만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18세기에 일어난 실증적 사조와 새로운 역사의식의 고조는 여러 학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넣어 주었다. 역사의식의 발전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지리, 산수, 지도 등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어와 국문학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 시켜 나갔다. 시가나 소설의 표현 수단으로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고, 가사보다는 시조가 더욱 유행하는 등 문학을 한글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sup>74)</sup>

---

73) 정양모, 전계서, p24.

74) 김상희, 전계논문, pp11-12.

## 2) 프랑스 시대적 특성

### (1) 사회 경제적 특성

18세기의 프랑스는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면에서 풍성한 생산적 양상을 준 시기였다. 18세기 최대의 계몽사상가인 볼테르(Voltaire, 1694-1778)의 <백과전서>,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J. J.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 1762>, 작가 보마르셰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등이 출간되었는데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은 단순한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신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큰 자유를 얻는다는 견해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여 인간의 느낌, 감정, 의지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 이론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1760년대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계몽주의는 18세기 혹은 적어도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의 시대를 풍미하던 역사에 대한 전망과 태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전 시대에 비해 역사에 대해 계몽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5)</sup> 이 계몽주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 이성(理性)의 존중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성에 대한 낙관적(樂觀的)인 신뢰, 이성의 힘이 인생을 충실(充實)시킨다는 신념, 나아가 자유, 향락적인 인간감정의 존중에 기틀을 두고 있다.<sup>76)</sup>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성의 힘이 실제 생활의 실천과 결부되는 데에 그의 또 하나의 특질을 이루고 있어 그것은 동적(動的), 실천적 휴머니즘(Humanism)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75) 이희현(1993), 6~18世紀 西洋服飾의 變化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pp142-143.

76) 김은희(1993), 女性의 머리 形態와 頭飾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6.

수 있는 것이다.<sup>77)</sup> 그리하여 내세(來世)에서의 행복의 동경(憧憬)보다 현세(現世)에서의 향락의 추구가 인생의 주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18세기는 사상적(思想的)으로는 이성만능(理性萬能)의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는 향락추구의 시대였다.<sup>78)</sup>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대왕’ 또는 ‘태양(太陽)왕’이라 불리었던 루이 14세(1643-1715)이후 루이 15세(1715-1774)가 즉위한 1715년부터 8년간은 흔히 섭정시대라고 부르는데 워낙 절대군주로서 군림하였던 루이 14세에 대한 반동으로 그 섭정의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루이 14세에서 15세, 16세로 이어지는 절대군주제의 정치체제 밑에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시민계급을 선두로 절대왕권 하의 구체제(Ancien Regime)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sup>79)</sup>

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루이 14세부터 강화되어 온 절대왕권 하에 제 1신분인 성직자, 제 2신분인 귀족, 제 3신분인 평민으로 구성된 계급주의 사회였다. 전체 인구의 0.2%의 성직자와 0.6%의 귀족층에서 전체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종 세금을 면세 받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세권을 갖고 있었다. 평민 중에서도 차등이 있었다. 세금 징수원, 은행가, 무역 대상업 등의 부르주아는 오히려 재력으로는 귀족을 압도하였으며 가난한 귀족과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도모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반면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과 노동자들은 납세와 부역 부담의 증가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불만의 소리가 점차 커져갔다.<sup>80)</sup>

이렇듯 구체제의 구성요소는 첫째는 봉건적 복합체이고, 둘째는 기본

---

77) 이영환(1983), <서양미술사>, 서울 : 박영사, p290.

78) 김은희, 전개논문, p6.

79) 신상욱(1984), 西洋服飾史, 서울 : 수확사, p217.

80) 임영자 외, 전개서, p211.

적으로 신분사회였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대주의였다.

루이 14세 사후에 베르사유의 궁정은 해체되었고, 아직 어린아이였던 루이 15세는 튀일리로 보내졌다. 루이 14세 말년에는 정치적인 실패와 정부(情婦) 땡트농(Maintenon, Marquise de, 1635-1719) 부인의 금욕적인 생활이 궁정 생활의 침체를 가져와 귀족들 사이에서는 기울어 가는 베르사유의 궁정을 서둘러 떠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많은 저택이 파리에 세워졌고 지방에는 성이 건축되었다. 사회는 변화하였고 점점 더 팽창하였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옛 문무귀족과 합류하였다. 루이 14세 재위 후반기의 엄격했던 시기가 지나가자 사회의 윤리의식은 해이해졌다. 오를레앙의 대공이 다스렸던 8년간의 섭정기(1715-1723)는 쾌락을 좇는 사회의 전형이었다.<sup>81)</sup>

절대주의 체제는 항상 적자재정으로 허덕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롭고 큰 이익을 상인계급에게 안겨주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 공업은 지배계급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치품을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절대주의로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난 이윤을 우려냈다. 즉 구체제시대의 지배계급은 초호화판 향락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치품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sup>82)</sup> 루이 14세가 죽은 후 오를레앙 공이 섭정으로 취임한 때 루이 14세가 남긴 부채가 약 25억 프랑이었다고 한다. 이 무렵부터 프랑스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sup>83)</sup>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루이 16세(1774-1793)의 통치기로서 문화적으로는 매우 세련되게 정제되어 발전하였으나 약화된 왕권과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정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sup>84)</sup>

---

81) 제르맹 바쟁(1998), *바로크와 로코코*, 시공사, p173.

82)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譯(2001), *풍속의 역사 I*, 까치글방, p231.

83) 青木英夫, 전계서, p72.

84) 임영자 외, 전계서, p207.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전국 신분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재조직 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루이 16세의 지배에 항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의 주권기관으로서 행동할 권리까지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사형에 처해졌다.<sup>85)</sup>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근인(近因)으로는 먼저, 국민 대다수의 누적된 불평불만과 루이 16세 시기의 4대 전쟁과 미국 독립 전쟁 지원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1778년 이래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왕은 3부회를 소집하게 되는 이 의회에 참석한 귀족들로부터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게 된다.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 1789)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1770년에서 1800년에 걸쳐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거쳐 스위스에까지 이르는 ‘서구 혁명’ 또는 보다 정확하게 ‘대서양 혁명’의 태동이 되었다. 즉 이것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해 시민혁명으로서의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가 크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혁명의 원인으로는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봉건적인 제도와 근대적인 제도가 혼재하여 일으킨 혼란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토지 소유의 심한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인 원인으로 보는 신분제의 다양성과 모순을 들 수 있다. 넷째, 사상적인 원인으로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Ideology)가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앞서도 언급했던 볼테르와 루소 등의 계몽사상이 등장하여 비판 정신과 합리주의 사상, 진보 사상을 전파하였으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등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1789년에 발발(勃發)한 혁명은 개개인을 가리지 않았다. 계급 적대감

---

85) 지정아, 전개논문, p6.

은 귀족 계급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츰, 온갖 시도와 공작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혹한 보복을 강요하였다. 귀족 계급과 왕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기초하고 부유한 중산층 은행가에 의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었던 낡은 세력균형은 흔들리게 되었고, 귀족 계급의 몰락을 목인해 왔던 사람들도 이른바 ‘테러’의 다음 차례 희생자가 되었고 프랑스 궁정의 전 체제가 붕괴되었다.<sup>86)</sup> 이로 인한 부르주아 시대는 18세기에 등장한 순수한 상품생산 경제양식을 바탕으로 했던 근대 자본주의 시대였다. 이 근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의 급격한 발전에 기초하여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sup>87)</sup>

## (2) 문화 예술적 특성

문화 예술의 황금기인 17세기를 지나 18세기 계몽시대에 이르러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풍요와 급격한 변혁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예술 분야를 지배한 사조는 신고전주의지만, 점점 예술가의 상상력과 대중의 기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관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sup>88)</sup>

18세기는 17세기 바로크(Baroque)<sup>89)</sup> 시대의 거대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부터 로코코(Rococo)<sup>90)</sup> 스타일인 가볍고 섬세한 색채와 문양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sup>91)</sup> 이는 쇠퇴기의 절대주의 문화를 반

86) 스테판 존스 ; 전혜숙(1991), 18세기의 미술, 예경산업사, p79.

87)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역, 전계서, p221.

88) 박무성(1992), 西洋近代史總論, 법문사, p545.

89) Baroque, 서양 예술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이면서 예술 사조의 한 유형. 르네상스 이후 17~18세기에 걸쳐 서양의 미술, 음악, 건축에서 잘 나타난다. 거칠고 과장된 남성 경향의 17세기 미술양식이다.

90) Rococo, 18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난 예술형식, Rocaille(조개무늬 장식, 자갈) 어원에서 왔다. 바로크 양식이 수정 약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프랑스 특유의 건축의 내부 장식, 미술, 생활요구의 장식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영한다고 보며, 귀족적 부르주아적 감상과 이국적 취향이 함께하여 에로틱한 퇴폐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 진보와 함께 예술미가 풍부한 로코코 시대의 의상에서도 그 특색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입을 수 있는 것 보다는 예술성에 의해 인간을 하나의 살아있는 작품으로 표현하였는데<sup>92)</sup> 이는 화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철학은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사이에서 동요했고 예술 의욕 역시 두 개의 상반된 사조에 의해 지배받았다. 즉 이 시기에는 엄격한 고전주의와 매우 자유로운 회화적 관점이 공존(共存)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귀족적 계층이 주도하던 예술경향과 때로는 시민계층이 주도하는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 결국 시민계급의 대표적 예술양식으로 성장한 신고전주의에 의해 교체되었다.

극도로 세련된 감각으로부터 배출되는 우아함과 화려함의 양식인 로코코미술은 여성적인 느낌의 장식취미의 미술이며, 루이 14 세로 대표되는 '절대왕권'하의 근엄하고 장엄한 법칙적이었던 양식하고는 그 맥락이 전혀 달랐다. 루이 14세의 귀족미술이 베르사유 궁정의 장엄하고 고전적인 바로크적인 데서부터 나타났다면, 로코코의 귀족미술은 파리의 우수한 살롱(Salon)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유산(有産) 지배계급에서 살롱은 서민의 주막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사교생활의 특수한 형태였다. 자연히 살롱은 여론의 중심이 되었고 프랑스는 사교적인 회합이 역사적인 전기가 된 유일한 국가였다.

살롱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하여 루이 15세 치하의 살롱은 철학적이었는가 하면 루이 16세 때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부속실의 역할까

---

91) Blanche Payne(1965), History of costume, NY : Harper Row Rub, p387.

92) 김선영(1992), 東, 西洋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p52.

지 하였다. 궁정의 사치욕과 오만함과는 달리 문학이나 회화에서는 진지한 존재의 이상, 순결하고 자연스러운 생활태도의 이상을 표현하고자 했다.<sup>93)</sup> 예술가들 또한 귀족의 저택, 살롱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예술은 좀 더 인간적으로 되어갔다.<sup>94)</sup> 그 당시 살롱이 대표한 정신문화는 살롱을 묘사한 많은 저술가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었다.<sup>95)</sup>

로코코 양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고전적인 범칙의 무시이다. 규칙적 형상에 맞춘 것, 장중한 것이나 어두운 음영을 피하는 경향, 직선 특히 수평한 직선이나 직각을 피하는 경향도 중요한 특색이다.<sup>96)</sup>

한마디로 말하여 실리주의적 쾌적, 쾌감을 구하는 것인 동시에 장중한 중압감을 세련되게 하고 염려섬약(艷麗纖弱)한 왕조풍과 우미(優美)한 여성적인 성격을 지니는 데 있다.<sup>97)</sup>

이 로코코 스타일은 1720-1730년 사이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건축, 실내장식, 가구, 그림, 조각, 음악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물의 문양이나 복식에도 적용되었다.<sup>98)</sup>

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18세기 미술은 특히 산업 미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미술애호가들은 가구와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에 심취하였다. 세련된 귀족 사회에서 옛것이든 새로운 형식이든 예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예술에 대한 감식안도 높아졌다.

루이 14세는 예술에 대한 왕실 후원자의 전형이 되었다. 개인 미술수집가는 점점 더 많이 생겨났고,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미술품은 높은 가

---

93) 앙드레 모로아 ; 신용석 譯(1993), 프랑스사, 기린원, p271.

94) Arnold Hauser ; 백낙청 譯(1991),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 古代中世篇, 창작과 비평사, pp221-222.

95)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 박종만 譯(2001), 풍속의 역사Ⅲ, 까치글방, p400.

96) 지정아, 전개논문, p9.

97) 이영환, 전개서, p291.

98) 김은희, 전개논문, p10.

격으로 거래되었다.

어린 루이 15세가 베르사유의 궁정을 재건하려 했을 때에도 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요가 급증하는 추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왕비는 미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미술 전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 왕의 정부(情婦)들이 예술에 대한 취향을 세련되게 하는데 일조한바 있으나 주도권을 쥐는 것은 궁정이 아니라 도시였다.<sup>99)</sup>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Madame de Pompadour, 1721-1764)의 여러 저택과 성에 있었던 물품의 목록은 4절지 크기로 200여 쪽이 넘었으며 베르사유 궁과 왕실의 다른 궁전들은 가구와 물품들로 넘쳐났으나 혁명 정부 하에서 대부분 경매로 팔려 나갔다.<sup>100)</sup>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 역시 둘 다 대단한 예술 후원자였다.<sup>101)</sup>

회화에서는 경쾌한 감각을 선호하는 이 시대의 미의식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다양한 작품이 출현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와토(Jean Antoine Watteau, 1684-1721), 부셰(Boucher Francois, 1703-1770), 프라고나르(Jean Honore Fragonard, 1732-1806), 샤흐맹(Jean Baptiste Simeon Chardin, 1699-1779)<sup>102)</sup> 등이 있다. 특히 와토는 로코코 시대의 새로운 회화의 창시자이며 뛰어난 소묘력과 경쾌하고 우아한 색채의 구사력이 탁월하다. 패션과 풍속, 연극 등을 테마로 하는 그림을 많이 제작했다. 가벼운 붓놀림과 풍부한 색채가 특징이다. 부셰는 풍속화에 신화를 가미시켜 실내장식화에 새 경지를 열었다. <우아한 축제, Fetes galantes>풍의 비너스 예찬은 그의 주요 모티프의 하나이다.

---

99) 제르맹 바쟁, 전계서, pp173-714.

100) 제르맹 바쟁, 전계서, p193.

101) 스테판 존스 ; 전혜숙, 전계서, p79.

102) 18세기 프랑스 화단을 대표한 대가, 착실한 소묘력과 잘 짜인 구도, 묘한 색채 처리로 정물화 약 140점, 실내풍속화 약 75점, 초상 약 20점, 기타 약 15점을 남기고 갔다.

프라고나르는 부세의 제자로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사랑의 유희를 따뜻한 색채와 속도감 있는 터치로 구사했다. 이러한 점에서 로코코의 정통성을 계승한 작가로 평가되었다.

예술가들의 관심도 이미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것에서 벗어나 우아한 사회로 돌려졌으며 대예술가 보다는 여체(女體)를 전문으로 그리는 부세나 비속한 상류사회를 매혹적으로 묘사한 프라고나르, 그 중에서도 와토 같은 화가는 인생의 무상과 기쁨을 심오하게 표현한 대가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sup>103)</sup> 18세기의 예술은 한 마디로 풍요로웠다.

18세기 로코코 회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것을 들 수 있다. 때문에 그 수요가 대단하였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초상화 그리는 것을 즐겨했고, 초상화 양식은 사회적인 기호를 따랐으며 화가들은 주문자를 매혹적인 자세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단순함으로의 회귀가 일어났다. 그래서 로코코의 화려한 측면과 병행하여 일반 시민의 친숙한 모습을 간결한 수법으로 정확히 묘사했던 샤르맹은 많은 이들의 호감을 샀으며 샤르맹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자크 아베드(Jacques Aved, 1702-1776)도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화가였다. 그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집에서처럼 평상복을 입고 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이를테면 여인네들이 독서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두 명의 파스텔 초상화가장-뵘티스트 페로노(Jean Baptiste Perronneau, 1715-1783)와 모리스 캉탱 드 라투르(Maurice Quentin de Latour, 1704-1788)는 초상화를 최고로 발전시켜 놓았다.<sup>104)</sup> 여러 작품들 중에는 당시 왕족의 화장 문화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계몽사조의 낙천적인 인생관을 배경으로 밝고 화려한 향락 생활을 전개하는 무대로서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었던 로코코 미술에 부흥해

---

103) 앙드레 모로아 ; 신용석 譯, 전계서, p269.

104) 제르맹 바쟁, 전계서, pp187-189.

서 관능에 호소하고 인생의 기쁨을 음악적인 선과 면의 운동으로 표현하는 장식 미술을 공간적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로코코 건축이다.<sup>105)</sup>

로코코 건축의 전개는 섭정양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양식은 루이 14세가 죽은 후, 당시 5세의 루이 15세(1715-1774)에 대신해서 오를레앙 공(Philippe d'Orleans)의 8년간 섭정(1715-1723)시대의 양식으로, 화려하면서도 장중한 루이 14세 양식에서 유연한 곡선을 애호하고 경쾌하며 우아한 형식을 갖는 루이 15세 양식으로 옮겨가는 과도양식인데 그 경향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sup>106)</sup>

로코코 건축에서는 벽체의 표면인 면이 중요시되었고, 그것을 장식하는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장식과 에워싼 유동적이고 가볍고 화려한 공간미가 건축물의 주체이다. 건축가들은 실내의 장식적인 공간형성과 건축내부의 계획에 있어서 훌륭한 미적 감각과 교묘함을 발휘하였다. 상류계급의 사교적인 살롱, 식당, 침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방을 쾌락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sup>107)</sup>

18세기의 조각은 건축보다 훨씬 바로크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조각가들은 로마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극적인 태도, 수사적인 자세, 역동적인 옷자락의 주름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왔다. 조각에서는 매우 부진한 편이었는데 로코코 양식 자체가 명확한 형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장식적인 회화처럼 색채와 선의 자유로운 시각적 효과를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후반기에는 조각가에 대한 공식적인 주문이 거의 없어 조각가들은 더욱 주택의 실내장식에 매달렸다.

실내장식의 변화는 이미 루이 14세 시대에 시작되었다. 프랑스 실내장식에서 로코코 양식이 변성하는 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은 건축가 제르맹 보프랑(Germain Boffrand, 1667-1754)이었다. 그는

---

105) 윤재희 외(1993), 바로크 로코코의 建築,, 세진사.

106) 이영환, 전게서, p292.

107) 윤재희, 전게서.

로코코 양식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 주는 파리의 호텔 수비즈(Hotel Soubise, 1738-1739)<그림 32>의 실내장식을 설계하였다. 이후에 18세기 중반의 가장 주도적인 건축가는 자크 앙주 가브리엘(Jacques-Angel Gabriel, 1698-1782)이었다. 풍파두르 부인을 위해 설계되어 1762-1764년 사이에 건설된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트리아농 정원은 자크-앙주 가브리엘의 고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또한 이런 새로운 고전주의로 베르사유 궁을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왕실의 재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sup>108)</sup>

로코코의 실내 장식은 실내에 있는 그림, 조각, 공예, 거울,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의 기초위에 통합, 조화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특색은 공예품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귀족들이 추구한 삶의 기쁨과 향락은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이 제작되었으므로 로코코 시대는 공예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세련된 향락을 추구하고, 유연하고 여성적인 우아함을 지향하여 지난 세기동안 거대한 화려함속에 묻혔던 인간의 내면적 성적 욕구나 애정의 표현들을 거침없이 드러내하고자 하였다. 인간적으로는 자유스러움을 구가하였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느 시대보다도 퇴폐적인 분위기에 이르게 되었다.<sup>109)</sup>

---

108) 제르맹 바쟁, 전계서, pp177-178.

109) 丹野郁(1960), 西洋服飾發達史 近世編, 東京: 光生館, 昭和35, pp162-164.

### Ⅲ. 화장 문화의 실증적 분석방법

#### 1. 분석 자료

현재 연구되어 있는 수많은 18세기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 18세기 한국과 프랑스의 복식사, 세계사, 미술사 등의 국내 외 문헌과 석 박사 논문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고 또한 자료에 있는 당시의 인물화나 18세기에 그려진 만화와 같은 여러 가지 풍자를 나타낸 그림을 통해 당시의 미에 대한 인식과 화장경향, 표현기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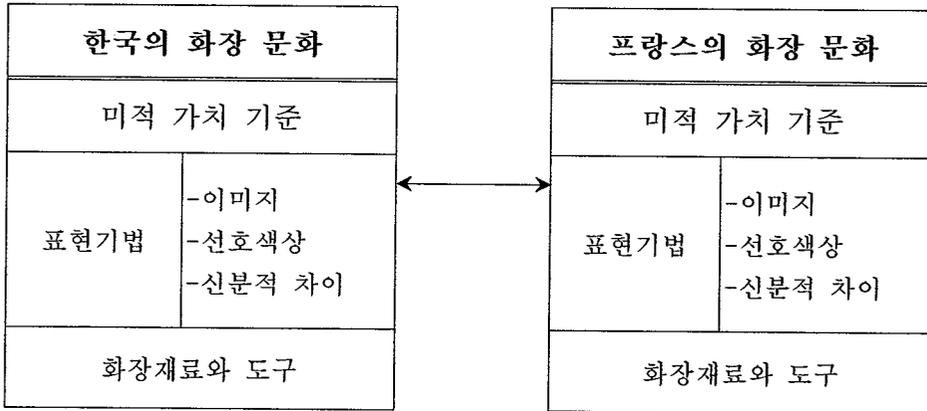
필자가 참조한 각 나라의 인물화는 일반 평민보다는 왕족이나 사대부, 귀족중심의 그림으로 화장의 성행이 가장 활발했던 특정계층 위주의 자료로 연구하였다.

화장재료와 도구의 자료로는 미국과 프랑스의 각종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18세기 그림 등의 사진과 대학 내에 18세기와 관련된 메이크업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메이크업의 첨부된 그림들은 이해를 더 돕기 위해 컬러 사진 위주로 참고하려고 노력하였고, 부득이 한 경우 흑백 사진을 첨부하였다. 국내 외 사진 촬영이 금지된 몇몇 유명박물관의 자료들은 많은 18세기 유물과 그림들이 있었음에도 참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고 현대사회의 몇몇 사진들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 2. 분석 방법

[표 1] 연구모형



연구 방법은 먼저 18세기라는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모든 것이 그렇듯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환경은 모든 변화라는 것의 원인을 제공하며 상관관계를 이루게 된다.

특히나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가장 먼저 문화,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런 점에서 필자는 화장을 예술의 한 분야로 보고 18세기 역사적 배경과 미술사를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였고 그러한 요인들이 18세기 화장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전부터 내려오던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고정관념은 시각적으로 매번 표현되는 화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18세기 말에는 신분체제가 붕괴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18세기는 한국과 프랑스 공통적으로 신분사회였으므로 모든 면에서 신분적 차이가 있는 만큼 화장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았다.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왕족이나 귀족, 그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은 그에 맞는 예술문화를 즐기고 신분상승을 위해 더욱 노력

했을 것이다. 화장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대중화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므로 귀족계층들이 미용의 선두주자로서 가장 많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미의 효과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해서 각 나라의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으로 18세기 양국의 화장 문화의 역사적 고찰과 화장의 특성, 표현기법, 화장재료, 화장도구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 등을 알아보았다. 화장에서는 표현기법과 유행하던 색상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부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화장도구, 화장품 원료 등도 살펴 보았다. 한국과 프랑스의 화장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었는데 그 밖에 당시의 메이크업을 추측하여 실제 인물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미용 중에서도 화장을 택하였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많이 연구 되어있는 복식 중심의 자료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던 화장이 이제는 독립적인 분야가 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발전되어 현재에는 하나의 예술분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다루면서 독립된 시각에서 재정립함에 초점을 두었다.

## IV. 화장 문화의 비교 분석

### 1. 미적 가치 기준의 차이점

18세기 시대의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미를 행하는 의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따라 화장을 하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화장을 하는 추체의 욕구, 관심의 대상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미적 가치란 ‘화장을 하는 인간의 행위나 사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 그러한 사고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등을 지칭한다.

[표 2] 미적 가치 기준의 차이점

국가 시기별	한국	프랑스
미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면중시의 신분과시</li> <li>·상류층 모방</li> <li>·세시풍속과 예(禮)</li> <li>·유교적 사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락과 사치문화</li> <li>·예술적 관점</li> <li>·사회적 이목 집중</li> <li>·왕족들 모방</li> <li>·사치풍조 유행</li> </ul>

유교적인 사상적 배경 하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곧 미의식으로 굳혀지게 된다. 예컨대, 대체로 짙은 화장을 한 기녀들과 구분됨에 초점이 맞춰지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외모 가꾸기를 했다. 사상적 기준에 억매여 외면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적의 미를 강조하고 미의 표현에 있어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른 미용의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신분사회인 사회적 배경으로 왕족이나 상류층은 새로운 화장 재료나 화려한 화장 도구의 장식을 통해 신분과시나 상류층 모방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시풍속이나 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로 때와 장소 등 여러 요인들의 구애를 많이 받아 체면중시와 보여지는 색조화장보다는 청결함에 중심을 두며 당시 여성상에 맞는 미에 국한되는 미적 가치 기준이 요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예술의 풍요와 급격한 변혁의 시대로 상상력과 대중의 기호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주관성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예술성에 의해 인간의 문화가치가 좌우된다고 인식하여 인간을 하나의 살아있는 작품으로 표현하였듯이 화장의 양식도 이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화장 표현과 미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 또한 신분 사회였던 만큼 사치 풍조의 유행이 만연하였고 화장과 의상, 머리 등 외면적 미를 중요시하여 신분과시, 인간의 욕구 표현 등 과도한 표현에 미적 기준이 맞춰졌다.

## 2. 화장의 표현기법

표현기법은 화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비교요인으로 각기 부위별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호색상에 따라 달라지며 시대적 특성상 신분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1) 이미지

화장의 표현기법의 결과로 가장 먼저 보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체적인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표현기법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화장에 의해 받는 느낌과 인상'이라고 정의한다.

## (2) 선호색상

화장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의견 타의견 그 시대의 다수의 의해 생겨난 경향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에 영향을 받고 생겨나는 것이 당대를 풍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호색상이라 함은 '18세기 화장의 흐름에 놓여있던 색상 가운데 우선순위로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정의한다.

## (3) 신분적 차이

모든 것이 신분 관계에 준하여 행하여지던 당시의 사회적 특성상 미용 또한 신분적 차이를 보였는데 간단히 왕족과 사대부 또는 귀족, 부수적으로 평민 그 외 기녀 등으로 나누었다.

[표 3] 화장의 표현기법 비교

국가 비교요인	한국	프랑스
피부	·청결 및 기초화장 주력 ·회고 복숭아 빛으로 표현.	·청결 개념보다는 회고 창백하게 표현. ·혈관은 푸른색으로 표현. ·패치로 창백함을 더 강조
눈썹	·가는 버들눈썹 형태, 그 외 여러 가지 모양 표현. ·다양한 눈썹 색상	·본인 눈썹 형태에서 깨끗하게 강조한 눈썹, ·다양한 눈썹 색상
입술 & 볼	·연하고 자연스러운 붉은 색상 표현	·자연색상보다 인공적인 붉은 색상으로 진하게 표현 ·다양한 붉은 계통 색상
이미지	·소박하고 세련됨 ·부드럽고 단아함	·선명하고 과장됨 ·강하면서 화려함
선호색상	·흰색선호	·흰색과 붉은색 선호

<p><b>신분적 차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족 및 사대부와 평민, 또는 기녀간의 확연한 차이</li> <li>·일반평민들은 대체로 의례 시에만 화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류층의 화장이 주도적.</li> <li>·많은 평민들의 일반적인 분 화장.</li> </ul>
<p><b>공통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흰 피부와 붉은 입술 선호</li> <li>·복상(服喪)기간 중은 화장 금지</li> </ul>	
<p><b>차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결관리에 주력</li> <li>·색조화장의 쇠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얼굴 뿐 아니라 가슴, 팔, 귀까지 화장</li> <li>·청결관리 부족으로 향수발달</li> </ul>

한국의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적 유교사상이 뿌리박혀 남성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본인의 미의식이 아니라 남성들의 미의식이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이 되어 한국의 화장철학을 낳았다. 때문에 외모의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 여겨 색조화장의 쇠퇴기를 맞고, 피부청결과 기초화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본래 흰색을 숭상한 오랜 전통으로 백의민족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한국 사람은 18세기 피부화장에도 희고 밝은 피부 화장을 선호하였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흰 피부표현은 프랑스에서도 나타났는데 백발의 유행에 맞추어 얼굴도 인형처럼 보이게 하얗게 표현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건강한 붉은 피부 색깔보다 창백한 색깔을 선호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건강함이 촌스러움으로 여겨지는 미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국적 취향으로 무분별하고 과장되게 표현되던 18세기의 프랑스 화장에는 조절경향이 없이 무조건 이마는 희고 다른 부분보다 밝게 표현하였고, 관자놀이로 가면서 약간 어둡게 표현했으며 입술 라인은 석고처럼 하얗게 했는데 피부표현을 더욱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 패치

(Patch)라는 점이 성행을 이루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색상과 모양, 눈썹을 수정하는 과정까지 눈썹화장이 발달된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선의 느낌이 많은 서양인들의 특징으로 있는 그대로의 눈썹 모양에서 더 뚜렷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쥐의 피부로 만든 인조눈썹을 남녀 모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미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다.

가장 표현의 차이를 보이는 입술과 볼 화장은 한국의 경우 자연스러운 표현과 재료를 추구한 반면 프랑스는 인공적인 붉은 화장을 추구하였다. 붉은색의 종류도 10가지 이상으로 오히려 피부화장보다 볼 화장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러한 두터운 화장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행하였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생활 가운데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훨씬 크고 자유로웠음이 프랑스 미용의 발달의 원천이 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표현과 요인들이 한국의 모든 표현에서의 약한 화장기법으로 자연스럽고 소박한 이미지와 프랑스의 화려하고 무분별한 화장 문화로 분장수준의 강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을 선으로 부각시키는 서양 화장에 비해 우리나라의 화장은 곡선감 있는 완만한 면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적으로 양국 모두 복상(服喪)중일 때는 한국의 경우 화장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붉은 화장을 금했는데 미를 가꾸는 것이 당시 일종의 향락과 유희의 한 부분으로도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은 여론의 강한 역류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결정적으로 화려하고 방탕했던 유행의 물결은 약화되어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이 널리 인식되었으며, 청결함이 아름다움의 기본조건으로 되어갔다.

[사진 1] - 18세기 한국의 화장 경향



[사진 2] - 18세기 프랑스의 화장 경향



[조선시대 화장 경향]



<그림 1>110)



<그림 2>111)



<그림 3>112)



<그림 4>113)

110) 미인도, 신윤복, 조선시대 (간송미술관), 출처 : 백영자 외(2004), 한국복식의 역사, p337.

111) 미인도(국립 동경박물관), 출처 : 상계서, p264.

112) 18세기 미인도(온양민속박물관), 출처 : 상계서, p482.

113) 미인도(동아대 박물관), 출처 : 상계서, p318.

[프랑스 화장 경향]



<그림 5>114)



<그림 6>115)



<그림 7>116)



<그림 8>117)

114) 루이 15세의 딸 앙리에트, 출처 : 도미니크 파케(1998), 전개서, p55.

115) 루이 15세의 딸 아델라이드 부인의 초상(추정), 18세기,  
출처 : 최인경 외(2004), 서양 미술 400년, p75.

116) 에이거란더스(Aiguirandes) 부인, 1759,  
출처 : 김희숙(2000),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p87.

117) 마담 드 풍파두르, 1758, 부세. 출처 : 출처 : Sally Pointer(2005),  
The Artifice of Beauty, Sutton. p116.

### 3. 화장품과 화장도구

화장에 있어 화장품과 화장도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시대별 독특한 화장경향의 특징으로 특정한 화장품과 화장도구가 발전하기도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화장품과 화장도구는 18세기 화장하는데 쓰인 모든 물건 및 향료제품과 도구 등을 총칭하여 이른다.

[표 4] 화장품과 화장도구

국가 비교요인	한국	프랑스
화장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연백분, 연분</li> <li>·연지</li> <li>·눈썹먹</li> <li>·향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분</li> <li>·루즈</li> <li>·불연지</li> <li>·눈썹먹</li> <li>·향수</li> </ul>
화장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울</li> <li>·분합-분접시, 분물통</li> <li>·분첩</li> <li>·유기</li> <li>·경대</li> <li>·빗집</li> <li>·족집계</li> <li>·연지 곤지분</li> <li>·눈썹 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울</li> <li>·패치</li> <li>·패치박스</li> <li>·연지박스</li> <li>·머리 기름박스</li> <li>·인조눈썹</li> <li>·아교</li> <li>·플럼퍼(plumper)-패드</li> <li>·불연지 브러시</li> </ul>

화장품의 종류로 두 나라의 공통적인 면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피부화장에 중요한 분을 들 수 있다.

분은 피부화장을 위한 백분과 연지 화장을 위한 색분으로 나뉘었는데 백분은 부착력이 약한 무연분 사용에서 납과 초를 섞은 연분으로

졌고 후기에는 복숭아 빛 분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분합에 보관 후 분 접시에 물을 개어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만든 분첩으로 두드려 발랐다. 슝털제거를 위해 족집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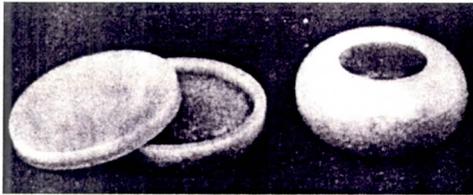
프랑스의 경우 얼굴과 머리까지 분의 사용으로 그 도가 지나쳐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프랑스는 백납분, 즉 납 가루분에서 중국산 쌀 가루분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매우 미세하고 브랜드로 정제한 것이나 와인의 알코올로 정제한 것이 있었다. 색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모두 밝은 색상이었다. 또 패치사용이 성행하여 패치박스를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눈썹먹으로 한국은 관솔, 떡 버드식물을 태워 만든 재의 색에 따라서 검정색에서부터 자색까지 다른 색상들을 제조했고 프랑스에서는 화장품의 역사로 보아 각 유럽의 여러 나라와 특히 이탈리아나 영국 등의 영향으로 눈썹먹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눈가표현을 위해 벨라도나의 즙 이용과 인조 눈썹도 유행한 것으로 보아 눈 화장이 많이 발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연지는 볼과 입술을 같이 치장하는 화장품으로 쓰였으며, 재료는 홍화(紅花)와 주사(朱砂)로 추정되며 입술연지 사용이 성행하였다. 프랑스의 볼연지는 식물성 염료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는 등 이 또한 여러 피부를 위해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사용했다. 프랑스의 경우 연지통과 브러쉬 등 여러 부수적 화장도구들이 발달하였다. 또한 루즈와 향수의 사용이 발달하여 많은 이익도 냈다. 그 밖에도 볼의 살이 있어보이도록 볼이 패드의 사용 등 여러 가지로 근세 유럽의 화장 문화를 주도하였다.

이렇게 화장품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불어 화장도구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화장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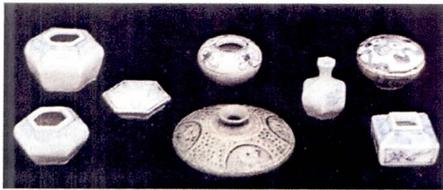
[조선시대 화장품과 화장도구]



<그림 9>118)



<그림 10>119)



<그림 1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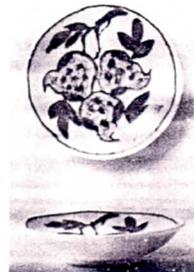
<그림 12>121)



<그림 13>122)



<그림 14>123)



<그림 15>124)



<그림 16>125)

118) 백분(조선시대), 출처 : 조효순, 전개서, p387.

119) 청화백자화장분항 18세기 중엽(국립중앙박물관소장), 출처 : 한국미술전집 10.

120) 화장구(온양민속박물관), 출처 : 백영자 외(2004), 전개서, p340.

121) 궁중용 은제 화장도구(조선시대, 혜경궁 홍씨 유물), 출처 : 조효순, 전개서, p383.

122) 청화백자분함(조선시대, 18~19세기), 출처 : 전완길, 전개서, p86.

123) 백자분물통(조선시대, 18세기), 출처 : 상계서,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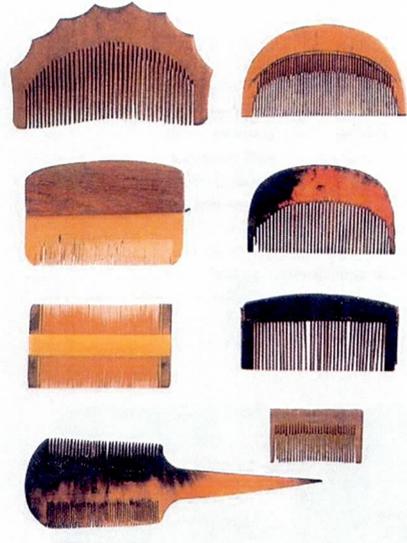
124) 청화백자석류문분접시(조선시대),

출처 : 라현숙(1999), 韓國化粧史,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p42.

125) 백자유병(조선시대, 18세기), 출처 : 전완길, 전개서, p108.



<그림 17>126)



<그림 18>127)



<그림 19>128)



<그림 20>129)



<그림 21>130)

126) 족집게(고려~조선시대), 출처 : 태평양 박물관.

127) 궁중용 열레빗, 참빗, 상투빗, 가리마용 면빗(조선후기),  
출처 : 조효순(1989), 복식, p56.

128) 빗집(조선시대, 18~19세기), 출처 : 전완길, 전개서, p114.

129) 거울(조선시대, 18~19세기 말), 출처 : 상계서, p119.

130) 경대(조선시대), 출처 : 상계서, p113.

[프랑스 화장품과 화장도구]



<그림 22>131)



<그림 23>132)



<그림 24>133)



<그림 25>134)



<그림 26>135)

131) 분통, 출처 : 도미니크 파케, 전개서, p54.

132) 패치박스(1780, Musee des Arts Decoratifs, Paris, 진주와 핑크, 그린, 골드색의 꽃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출처 : Alain Rustenholz, ibid, p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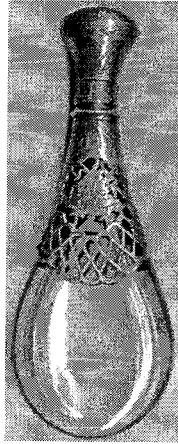
133) 패치박스(1789, Musee des Arts Decoratifs의 특별한 물건, 총 3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과 에나멜 장식으로 만들어졌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 금 손잡이로 된 브러시가 내장 되어있다), 출처 : Alain Rustenholz, ibid, p77.

134) 이중 뚜껑의 패치 박스, (프랑스 1773-1774, 약 6\*4.1\*2.2cm, 반투명 등자색의 에나멜과 금이 발라져 있다. 에나멜 뚜껑이 붙은 작은 칸이 둘, 브러쉬를 넣기 위한 뚜껑이 없는 작은 칸이 하나 있다. 뚜껑 안쪽은 거울이 붙어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소장), 출처 : 도미니크 파케, 전개서,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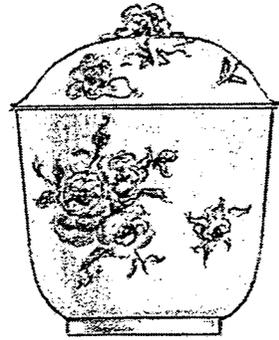
135) 금 패치박스(1779, Musee des Arts Decoratifs, 뚜껑위에 카메오 스타일의 얇은 부조가 되어 있다), 출처 : Alain Rustenholz, ibid,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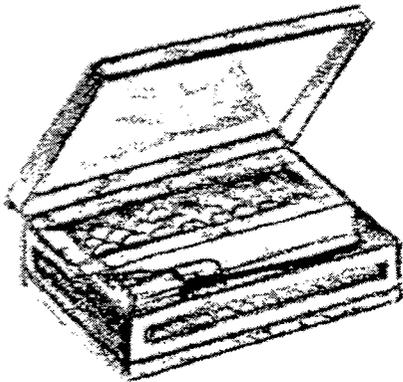
<그림 27>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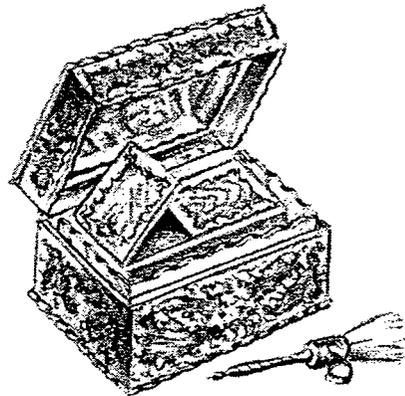
<그림 28>137)



<그림 29>138)



<그림 30>139)



<그림 31>140)

- 136) 루즈상자(18세기 향수판매점에서 판매), 출처 : Alain Rustenholz, ibid, p58.
- 137) 금치장의 눈물방울 모양 향수병 (18세기 말). 출처 : Sally Pointer, ibid, p121.
- 138) 연결 자기 머리 기름 통(프랑스 1750년-60년), 출처 : Richard Corson, ibid, p208.
- 139) 불연지 박스(프랑스 1784-89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에나멜을 입힌 금 상자로서 경첩이 붙은 뚜껑이 있다). 출처 : Richard Corson, ibid, p206.
- 140) 마노를 박아 돌음 무늬로 장식한 금 불연지 박스 (프랑스 1747-48년, 약 5.4×4.1×3.2cm, 안의 두개의 칸에는 금과 마노 뚜껑이 붙어 있고, 또 하나의 작은 칸에는 무늬 있는 브러시가 내장, 뚜껑 안쪽에는 거울이 붙어 있다), 출처 : Richard Corson, ibid, p206.

## V. 결 론

### 1. 시사점

화장을 하는 행위는 신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부위의 특징을 강조하고 단점을 수정하여 변모하려는 의도가 있다. 거기에는 사회의 문화가 어느 정도로 허용하며 본인이 소속해 있는 집단에서 허용하는 미적 가치 기준이 반영된다. 시대마다 미의 관점이나 미인상의 기준이 변함에 따라 화장경향과 표현기법, 그에 따른 전반적인 재료, 도구들도 변하게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화장 문화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특정 계층이기는 하지만 18세기 화장 문화에 미치게 된 요인들과 화장의 경향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미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세기마다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만연되어 있는 시대적 사상이나 정서는 나라와 세대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화장 문화도 달라지게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상과 정서는 소박하고 정결한 몸가짐을 지양하고 유교이념과 부합되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표현되었다. 여성의 역할과 신분에 따라 화장이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한국인의 화장은 대체로 옅고 은은하여 한 듯, 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화장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인하여 표현에 따른 고정관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시 미인으로 여겨지던 궁녀와 기생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못한데서 미인박명(美人薄命) 같은 사상이 생겨나고 때문에 화장은 아

름다움을 더해주는 수단보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요인이었기에 우리나라 화장의 보급과 발전과정이 더디고 저해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과 붉은색이 잡귀를 물리친다는 속설로 연지, 끈지 사용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저항감은 무의식중에 다소 남아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 표현의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고 과도한 표현기법이 많았으나 정적인 한국 화장의 표현보다는 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모방에 모방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양식이 생겨나고 발전되는 등 한국보다는 화려한 화장 문화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의 화장 문화가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화나 TV, 연극 및 그 외 무대 화장을 제외하고는 내추럴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변하지 않고 있어 일반인들의 화장 경향에서 아직은 우리의 미의식속에 조선시대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화장은 진한 화장보다 오히려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여겨지는 경향으로 여러 표현수단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나타난다.

둘째,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화장 문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당대의 미의식의 수준과 차이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떠나 근본적으로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미에 대한 욕구와 집착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부 노화에 관심을 가졌던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피부에 유해한 화장품을 알고도 무분별하게 쓰는 프랑스 여성들의 욕구는 18세기의 화장 문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끊임없이 자연주의를 외치는 현대사회에서도 미에 대한 욕구는 변함이 없다. 또한 동양에 비해 지역적 특성상 나라들 간에 교류로 인해 화장품 개발이 활발하던

서양에서는 화장 문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행하였다. 동양과 서양의 화장 경향은 다르지만 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의미는 당시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8세기의 화장 문화는 당시의 화장으로 그치는 문화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 성향이나 의미가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화장은 특히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방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쉽지 않다. 시각화되는 이 시대에 대중의 모방심리를 끌어내기 위한 미디어나 그를 통해 보이는 특정대상으로부터 한 시대의 화장의 유행은 시작되고 그것은 시대의 화장 문화를 만들고 다시 반복되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부각되는 현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난다.

예컨대, 볼 화장품이 유행을 끌 때는 여러 색상의 볼 화장품과 그에 따른 표현기법이 18세기의 볼 화장기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흰 피부의 선호가 높을 때는 조선시대의 맑은 피부 표현기법과 패션쇼 등에서의 보석과 같은 패치의 유행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는 화장 문화가 있었던 18세기와는 달리 현대 시대에는 여러 복합적인 화장이 현존하면서 개성에 맞추어 표출된다.

## 2. 향후 연구방향

화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시대부터 현재까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화장용에 관한 체계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한 응용분야로서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연구가 중요하며 특정한 시대의 화장 문화가 주가 될 수는 없듯이 여러 시대의 화장 문화의 다양한 시각적 관점이 요구된다.

첫째 18세기 같이 성격이 강한 특정 시대의 비교연구도 많은 의미를

갖겠지만 각기 다른 화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기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화장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현재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연구는 한국 화장 문화에 발전과 한국만의 색깔을 가진 새로운 양식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18세기의 화장 문화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응용이 되서 표현되는지 연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18세기 화장 문화가 준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화장이 복식이나 문화예술 안에서 부수적이 아닌 주가 되게 연구가 되어진다면 화장을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르게 변화하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의 한계점

한국과 프랑스 화장 문화에 관한 비교로 시작한 본 연구는 크게는 동양과 서양의 화장 문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 나라의 화장 문화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받은 영향과 연관성으로 인해 주체적이기보다는 변형된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첫째, 본 논문은 한국과 프랑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제까지 미용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프랑스를 택하면서 동양의 화장 문화와의 유사성을 연구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그러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두 나라의 화장 문화가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고 한국과 프랑스가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것에 어폐가 있어 중국과 일본,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여러 메이저급

나라들까지 함께 연구하고자 했으나 자료에서 오는 어려움과 연구의 깊이에서 오는 미흡함으로 부득이하게 두 나라로 한정하였다.

둘째, 미용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화장 문화를 중심으로 부수적으로는 화장재료와 화장도구 등을 연구하였는데 피부 미용과 화장, 화장품 원료 등의 영역이 겹치는 것이 많고 화장도구의 자료와 사진이 미흡하여 부분적으로 그림으로 대신 했음을 알리고 이는 화장 문화의 고찰로서 부수적으로 다루었다.

셋째는 18세기의 시대적 특성상 특정계층의 여성의 화장 문화를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미용이라는 개념이 당시 하나의 부와 향락의 수단으로 보였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민보다는 상류층이 화장 문화의 중심에서 있었을 것이며 평민의 미의식에 관한 부족은 18세기의 화장 문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또한 당시 프랑스의 평민이나 기녀 층들의 화장경향에 대한 자료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전체 계층 여성간의 화장경향의 대한 비교연구는 생략했음을 밝힌다.

# 참 고 문 헌

## <國內書>

- 김광우, 프랑스 미술 500년, 미술문화, 2006.
-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 도미니크 파케,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1998.
- 박무성, 西洋近代史總論, 法文社, 1992.
- 백영자 외, 한국복식의 역사, 경춘사, 2004.
-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 석주선, 韓國服飾史, 보진재, 1978.
- 스테판 존스 ; 전해숙 譯, 18세기의 미술, 예경산업사, 1991.
- 신상옥, 西洋服飾史, 수학사, 1984.
- 신용하,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 1997.
- 앙드레 모로아 ; 신용석 譯, 프랑스사, 기린, 1993.
- 에두아르트 폭스 ; 이기웅, 박종만 譯, 풍속의 역사 I, III, IV, 까치글방, 2001.
- 유준상, 18세기 프랑스 귀족사회의 미술관, 현대미술관연구,  
국립현대미술관, 1993.
- 윤재희 외, 바로크 로코코 建築, 세진사, 1993.
- 이규태, 韓國人의 生活構造 1, 朝鮮日報社, 1984.
- 이규태, 韓國人의 性과 사랑, 文音社, 1985.
-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1983.
- 임영자 외, 18세기 末 조선과 프랑스 頭髮樣式의 類似性 연구,  
한국복식학회, 1999.
- 전완길, 한국인 여속 몇 5000년, 교문사, 1980.

-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 정양모, 18세기 한국미술, 국립중앙박물관, 1993.
- 제르맹 바쟁, 바로크와 로코코, 시공사, 1998.
- 조진애, 그림에서 표현된 근세 서양복식, 경춘사, 2002.
- 조효순, 복식, 대원사, 1989.
- 조효순, 韓國服飾風俗史, 일지사, 1988.
- 최인경 외, 서양 미술 400년, SBS : 지앤씨미디어, 2004.
- 한우근,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1970.
- Arnold Hauser ; 백낙청 譯,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 古代中世篇,  
창작과 비평사, 1991.

### <國內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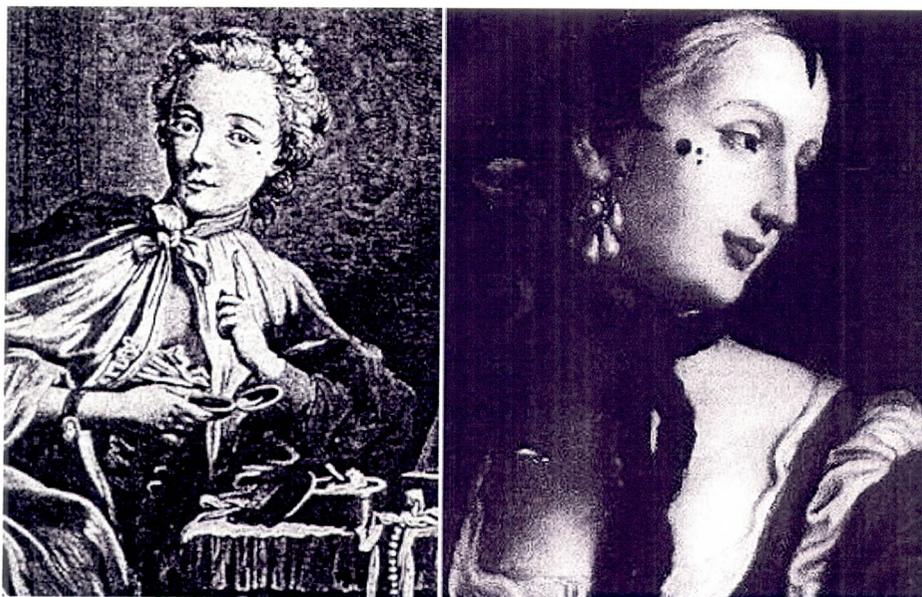
- 강병석, Total Fashion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5.
- 김상희, 18, 19世紀 風俗畵의 研究,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1998.
- 김선영, 東, 西洋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1992.
- 김은희, 女性의 머리 形態와 頭飾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4.
- 라현숙, 韓國化粧史,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보건환경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999.
- 박보영, 韓國, 中國, 日本 女性의 色調化粧文化,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7.
- 송민정, 우리나라 傳統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 이현주,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소연, 傳統 化粧材料의 變遷과 化粧法에 關한 研究,  
대구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지은, 國產化粧品과 輸入化粧品の 選好度에 關한 研究,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희현, 6~18世紀 西洋服飾의 變化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조은별,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지정아,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복식, 헤어, 메이크업 경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 <外國書>

-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近世編, 東京 : 光生館, 1960.
- 青木英夫, 西洋化粧文化史,, 東京 : 原流社, 1995.
- Alain Rustenholz, Make Up, Hachette Illustrated UK, 2003.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Y : Harper & Row, 1965.
- Richard Corson, Fashion in makeup, Peter Owen Limited, 2003.
- Sally Pointer, The Artifice of Beauty, Sutton, 2005.

원문수관



<그림 36>145)



<그림 37>146)



<그림 38>147)

145) 패치를 한 여자(18세기) 출처 : Alain Rustenholz(2003), ibid, p76.

146) 마담 풍파두르, 프랑수아 부세, 1756, 출처 : 김광우, 전개서, p100.

147) 마담 뒤 바리부인(Madame du Barry), 1782, 출처 : 조진애(2002),  
그림에서 표현된 근세 서양복식, 경춘사. p123.



<그림 39>148)



<그림 40>149)

148) 적색화장 초상화들. 나티에. 마담 Marsollier와 그의 딸 / 마담 드 Caumartin, 1753.

149) 금으로 도금한 은 화장 세트, 1769 영국 (National Museums & Galleries of Wales), 출처 : Sally Pointer, ibid, p124.

# ABSTRACT

## A Study on the 18<sup>th</sup> Century Make-up of Korea and France

Moon, Jung Lim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emplate historical backgrounds of France in 18<sup>th</sup> Century where the peak of Make-up and its disharmony co existed, and that of Korea where the opposite concept of Make-up was presented in pursuit of temperance. It also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link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erms of Make-up.

It is not accurate since when the concept, 'Make-up' has been used either in the Eastern or in Western, but it has developed tremendously for thousands of years for the purpose of not only Make-up but also for many other uses.

The field of beauty has become broader as time went by, and it still is quite difficult to break down. There are many reasons and causes behind appearance and changes of new fields of beauty. In

the past, the beauty trend showed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countries and centuries. However, nowadays, the trend raises the standards and shares a lot through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field of Make-up for both countries in modern ages where Make-up is much in trend.

This study is also intended to point out the social causes and psychological expressions of Make-up. On top of it, I wanted to analyze the culture of the Make-up at that time by looking into Make-up techincs, cosmetics, cosmetic tools, and etc.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

Make-up in the Chosun dynast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positions, especially in makeup trends of upper class women.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skin care rather than the color tones. That is because temperate ideologies and cultures prevailed in the dynasty. It affected the Make-up style and its freedom of expression was suppressed. Since nature adjusted lifestyles dominated at that time, most of cosmetics materials came from the nature. On the other hand, French women had strong desires towards expressing and making themselves up, due to the social atmosphere that permitted freedom of expression and pursued pleasure. Accordingly, it was excessively splendid and indiscreet, and artificial colors and materials were frequently used.

Atmospheres of each age affected the field of Make-up, which was one of the ways women expressed themselves.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cosmetics, cosmetic tools, and ornaments were closely followed that of the Make-up by the degree of the

expressions. In the 18<sup>th</sup> century, a few trends or types led the major streams, and specific Make-up cultures prevailed whereas different kinds of Make-up trends exist nowadays.